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Clear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지난 8월 8일 뉴욕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KOON 공연에서 소녀시대의 공연에 열광하고 있는 팬들. 케이팝이 미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사진 CJ&M

케이팝 한류는 미국에서 팬덤 형성중

케이팝 스타 공연 실제로 가보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녀시대 공연, 세살 아들도 좋아했다. 뉴저지 뉴악(Newark) 소재 스테이플 센터까지 교통체증이 없을 경우 약 3시간 30분

이면 도착한다. 삶의 경험으로 여행시 항상 교통체증을 변수로 고려해야 함을 알면서도 늘 행동에는 교통체증의 변수를 무시한다. 그래서 온가족이 드라이브하기로 했다. 웬걸, 90번 도로는 프레밍햄을 지나면서 84번 도로까지 꽂 막혀있었다. 뉴악까지 쉬엄쉬엄 5시간도착을 염두에 뒀 여유가 있었

다 싶었지만 평상시 50분이면 주파하던 90번 도로에 2시간 이상을 써버렸다. 아뵐사, 뉴저지에서 맛있는 한식 저녁을 먹고 콘서트장으로 향하던 계획이 근본도 없이 틀어지는 순간이었다.

인공위성으로 도로상황을 점검해 가장 빠
▶▶4면으로 계속

교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인 지도교사 쇠고랑

여학생에게 순결 지킬 필요 없다 말해
롱메도우즈 구문 학원 운영하는 원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교회 유스그룹(Youth Group)의 미성년자와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진 한인 장 모씨 (32)가 지난 4일 경찰에 체포됐다.

맨체스터 경찰 경감 크리스토퍼 데이비즈(Christopher Davis)에 의하면 이스트 롱메도우에 거주하는 장씨는 12건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롱메도우에 위치한 구문 학원을 운영해 왔으며 아가왕에 위치한 교회의 청년부 리더로 활동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씨는 교회에 출석하던 17살된 여학생에게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설득한 뒤 여학생의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매사추세츠주 법(MGL Ch. 272, s. 4)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중범죄이며 위반시 최고 3년 징역형을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각·무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jsung.com



From \$970
ONLY 1 STOP

보스톤-인천 비수기 왕복항공권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t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ames H. Cho,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영화 '암살' 광복절 까지 1000만명 돌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7일부터 보스톤 소재 Regal Cinemas Fenway 와 AMC Loews Boston Common 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암살' 이 현재 915만명을 넘어 1000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더 팬 미디어의 일원 윈디 리 씨는 "한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다" 며 "북미에서는 '암살' 이 올해 북미 개봉 한국 영화 첫주 개봉 성적 1위였던 '연평해전' 의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면서 1위 타이틀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미주에서는 영화 '암살' 이 'Assassination' 이라는 타이틀로 상영되는 중이다.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 암살작전을 둘러싼 독립군들과 임시정부대원, 이들을 쫓는 청부살인업자들과의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을 그린 '암살' 은 한국에서 지난 7월 22일 개봉하여 올해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 47만을 기록했다.

영화 '암살' 의 감독 최동훈 감독은 '범죄의 재구성', '타짜', '도둑들' 등의 흥행작에 이어 올해 '암살' 로 인해 또 한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장본인이다.

알다시피 영화 '암살' 은 막강한 캐스팅으로 전지현, 이정재, 이정우,



오달수, 조진웅, 이경영, 김해숙 로 조합된 연기파 배우들의 다채로운 연기가 펼쳐져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또한 조승우의 깜짝 출연으로 많은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렉싱턴에 거주하는 한인 J씨는 "2시간이 넘는 영화였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며 영화를 즐겼다" 고 말했다. 퀸지에 거주하는 한인 H씨 또한 "주연은 물론, 조연 배우들까지 모두 배역을

시원하고 훌륭하게 소화해내어 기대 이상이었다" 고 말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애국심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영화 '암살' 은 '대한민국 독립' 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라를 지킨 선조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게 하는 영화이다.

jham@bostonkorea.com

학원에서 여학생에게 술까지 먹여

▶▶1면에 이어서

받게 된다.

커네티컷주의 뉴스 스테이션 WFSB (wfsb.com)의 지난 5일 기사에 의하면 장씨는 지난 2012년 3월 14일부터 9월 11까지 6개월에 걸쳐 여학생에게 부모 몰래 집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한 뒤 자신의 차량, 백화점, 영화관 등에 성관계를 가졌다. 법원 서류에 의하면 장씨는 성관계를 갖기 전 여학생에게 술을 제공하였고 성관계를 갖은 후 과자와 주스를 제공한 적도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어 피해자의 온라인 일기장에는 "자기자신이 이용당해서 한심스럽다" 며 "책스 때문에 자신이 이용당했다" 고 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기장에는 장씨가 여학생 교복을 입은 모습을 요구했다고도 적혀 있다.

피해자의 온라인 일기장을 발견한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장씨는 체포된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

구몬 이벤트 매니저 겸 커뮤니케이션 담당 샤쿠아나 트위티 (Shaquanna Twitty)는 "지난 4월



교회 유스그룹의 미성년자와 오랜 기간 동안 성관계를 가진 한인 장모씨 (32)가 지난 4일 경찰에 체포됐다

부로 장 씨와의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몬의 직원이 아니며 롱메도우즈에 위치돼있는 장씨의 센터 또한 폐쇄되었다" 며 "장씨는 2010년부터 5년동안 구몬에서 일해왔다" 고 덧붙였다.

현재 장 씨에게는 35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이며 맨체스터 상급 법원 (Manchester Superior Court)에서 오는 9월 11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jham@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대리 스트라이프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펴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WELL 사용)
헤어 에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에니큐어 & 피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웍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샵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문화식물원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처럼 가족초청 가능?

입국금지 유예 신청
영주권 초대와 전혀 달라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여전히 시민권자만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지난 달 라디오 코리아와 미주 중앙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영주권자들도 불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들을 초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법 전문 로펌 '그늘집'의 대표 임병규 변호사 측은 '직계 가족 입국 금지 유예 신청은 올해 새로 바뀐 제도(I-601A)이지만 영주권자 직계가족 초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이민서비스국(USCIS) 공보 담당관 폴라 그레니어(Paula Grenier)도 4일 본지와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I-601A 웨이버는 영주권자들에게 초청권을 주는 혜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확인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된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은 21세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로 부모 또는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이다.

과거 불체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을 출국해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해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받아와야 했다. 하지만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180일 이상) 또는 10년(1년 이상)간 입국 금지 규정을 준수한 후에야 이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재입국 금지 유예는 지금까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게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된 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A)은 이 적용 대상에게 입국 금지 규정을 면제시켜 미국을 출국할 경우 다시 입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조치이다.

미 이민국서비스국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신청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자녀들은 예전에 비해 영주권 취득기간이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제도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여러 가지다. 첫 번째 주의 사항은 대상자가 불법체류만의 이유로 되어야 한다. 다른 범죄나 사유로는 조건부 웨이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면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미국 내에서 가



족이민청원(I-130) 승인을 받은 후 접수가 가능해지므로 명심해야 할 점이다. 가족이민청원은(I-130) 체류국가나 미국 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행 할 수 있다. 가족이민청원 승인을 받은 후 이민비자 비용은 국내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지불해야 한다.

이어 I-601A가 승인된 상황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인 아니기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다.

규정 변경과 자세한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regulations.gov)나 미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uscis.gov)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jham@bostonkorea.com



지난 2013년 가을 야유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서울대 동문들

뉴잉글랜드 서울대 동창회 및 야유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뉴잉글랜드지구 서울대 동창회(회장 이의인)는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Auburndale Park에서 야유회 겸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2년 전 야유회를 가졌던 곳이며 새 회장 취임 이후로 처음 갖는 모임이다.

동창회 측은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유쾌한 게임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푸짐한 음식 및 각종 상품도 준비했다고 전했다.

동창회 회장 및 임원직은 동창회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문들이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

다. 차편이 필요하거나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경우, 혹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http://sites.google.com/site/snuane>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일인당 \$10이고 학생 및 포닥은 \$5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창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이의인 회장(781-862-5270)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

일시: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낮 11:00 - 3:00

장소: Auburndale Park, 199 W. Pine St, Newton, MA 02466

참가비: 일인당 \$10, 학생 및 포닥은 \$5

jham@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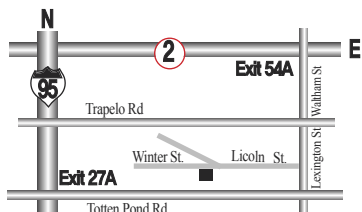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3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케이팝 스타 공연 실제 체험기

케이팝 이제는 미국 관중들도 사로잡아

▶▶1면에 이어서

큰 길을 찾아주는 구글맵의 도움을 받아 그나마 시간을 아꼈다. 뉴저지 뉴왁 스테이플 센터에 도착한 것은 7시 공연 시작 불과 30분 전이었다. 한류 음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식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던 CJ의 비비고 비빔밥 부스, 투레주르의 여러 가지 한국식 빵 부스, 맥도날드 부스 등 뉴저지 프루덴셜 센터에 차려진 홍보 부스는 우리의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챙겨 떠나기에 바빴다. 투레주르 부스에서 작은 빵 봉지를 여러 개 얻었지만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기에는 턱도 없었다. 결국 부스들이 철거준비에 한창인 곳을 떠나 인도인들이 운영하는 치킨 튀김 집에서 튀김과 물 그리고 주스를 사 들고 다시 스테이플스 센터로 돌아왔다.

불과 20분 전만 해도 있었던 부스는 사라지고 프루덴셜 센터로 들어가는 긴 줄의 행렬이 이를 대신했다. 어떤 사람들이 케이팝 공연을 보러 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몇 개의 줄이 있었지만 쉽게 확인되는 것은 최소한 공연장에 참가하는 65%는 아시안계라는 점이었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비 아시안계도 의외로 많았다. 한글로 소녀시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대머리 백인 아저씨의 모습이 전혀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저런 눈요기로 긴 줄을 서서 입장을 하는 순간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주로 총기와 폭발물을 경계하는 간단한 보안

절차를 통과하고 구입한 티켓의 좌석위치를 찾아갔지만 쇼는 이미 시작한 후였다. 강력하게 울리는 케이팝 음악과 관중들의 함성이 좌석을 찾아가는 넓은 홀에까지 울리며 빨리 자리를 찾아 앉도록 유혹했다. 마치 야구 경기장에 들어가 정해진 좌석을 찾아가는데 난데 없이 터진 함성이 한시라도 빨리 좌석을 찾도록 하는 설레임과 비슷한 것이었다. 이런 설레임이라니.

어렵사리 찾아 앉은 좌석에서는 그야말로 열광하는 관중들의 환호를 한몸에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장애인석에 20대로 보이는 흑인 아가씨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우리 일행을 개의치 않고 원하는 만큼 함성을 지르며 케이팝에 환호했다. 어떻게 케이팝에 심취하게 됐는지 묻고 싶었지만 공연에 폭파진 그의 흥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공연이 끝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와 인터뷰 할 기회를 갖지는 못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

다행히 내가 인터뷰를 원했던 사람들과의 인터뷰는 뉴욕 타임스에서 대신 진행해 주었다. 약간은 부끄럽지만 여기서 뉴욕 타임스가 케이팝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인터뷰 한 내용의 일부를 전하면서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다.

롱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백인인 마첼라 맥도

동아일보 : NYT "저스틴 비버 팬보다 케이팝 팬이 더 열정적" 뉴저지 한류 콘서트 KCON 보도.. "관객 70% 이상이 아시아인"

“미국 최고의 아이돌 스타인 가수 저스틴 비버의 팬보다 한류 팬들이 더 열정적이다.”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8일 뉴저지 주 뉴어크의 프루덴셜센터에서 열린 한류 콘서트 ‘KCON’ 현장의 열기를 이렇게 전했다.

2012년부터 CJ그룹이 주관하는 KCON은 ‘외국 팬들이 한류 스타와 직접 만나 음악, 드라마, 음식, 미용 등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느끼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북미 최대 규모의 한류 컨벤션이다. 지난해까지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 어바인 등에서만 열렸으나 올해부터 미 동부와 일본으로 개최 장소를 확대했다.

이날 프루덴셜센터를 가득 메운 약 1만7000명의 관객은 소녀시대, 틱탑, 빅스(VIXX), AOA 등 한국 가수들이 뽑아내는 춤과 노래의 열기에 무뎠어지지 못했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 주 롱아일랜드에서 온 21세의 백인 여성 미카엘

라 맥도널드 씨는 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KCON에도 참석한 열렬한 한류 팬이다. 그는 다른 젊은 여성 팬들과 마찬가지로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인 틱탑의 무대에 열광했다. 일부 여성 팬은 틱탑 멤버들이 ‘안녕’이라며 손을 흔들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펄펄 쏟았다.

NYT는 “KCON 참석자의 70% 이상이 비(非)아시아계”라며 “18~24세의 젊은 여성이 대부분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한류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내 한류 팬덤의 주류가 젊은 여성인 것은 한류 열기를 화장품, 의류 등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NYT는 분석했다. 한류 팬들은 한국 인기 그룹의 화장이나 의상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CJ 측은 올해 미국과 일본의 KCON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이 총 8만7000명이며 경제적 파급 효과는 5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날드는 공연이 끝나고 케이팝 스타들과 하이파 이벤트를 하기 위해 긴 줄을 서 기다렸다. 그녀는

일주일 전 LA에서 있었던 KCON 공연에도 참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뭇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5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케이팝 스타 공연 실제 체험기

▶▶4면에 이어서

가했고 이번 뉴욕 공연에도 참가할 정도로 열성적이다 머리도 케이팝 스타처럼하고 웃도 따라 입는다.

프랫 디자인 대학(Pratt Institute)의 학생인 22세의 카롤라이나 바보사는 한류 스타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 한류스타들에게 훨씬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다며 한국 화장품 선호도를 밝혔다.

이들 케이팝 열성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만나 친분을 유지하며 미국내에서 아주 드문 한국 음악 밴드의 투어 공연에 참여하고 실제적으로 번개미팅을 갖는 기회를 갖는다. 한류에 흠뻑 빠진 팬들은 일상에서도 먹는 것 입는 것 모두를 따라한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한국 음식 요리법도 배운다. 또한 팝스타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선호기도 한다.

CJ E&M의 미국내 마케팅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젤라 킬로런 씨는 “이들 케이팝 팬들은 저스틴 비버의 팬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다” 라고 평가한다.

한국언론의 케이팝 부풀리기

KCON의 관객은 어림잡아 약 6-7천명 정도. 동아일보의 보도는 1만 7천명이었다. 어디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대회 전 주최측이 준비한 공연 석의 수는 1만이었으며

입장권도 일부 판매가 안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었다. 더구나 이 신문은 비 아시안계가 70%라고 오보했다. 뉴욕 타임스가 팬들 중 여성이 70%라고 한 것을 잘못 옮긴 것이다. 바로 이전 문장에서 드라마피버 시청자들의 80%가 비 아시안계라는 것과 혼동이 되었을 수는 있지만 두번의 숫자 보도 오류는 한국 언론의 케이팝 부풀리기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팠다.

실제 케이팝 관객 대부분이 비아시안계라면 굳이 공연 장소를 LA와 뉴욕으로 한정할 이유가 있었을까. 상식적인 질문으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한국 언론의 부풀리기가 없어도 끊이지 않는 합성과 열광하는 관객들을 보며 케이팝이 미국에 파고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XX, AOA, 틴탑, 소녀시대 이들 그룹이 충분히 미국 팬들에게 확장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미 상당수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스톤케이팝 공연은 생각이 결코 무리한 상상이 아닐 수도 있다.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6시간이나 운전해서 가고 다시 4시간 운전해서 오는 것 두 번은 못한다. 보스톤 케이팝 공연이 실현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hsb@bostonkorea.com



뉴욕 공연에서 피날레를 장식한 소녀시대 사진제공 CJ&M



AOA의 뉴욕공연 사진제공 CJ&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함요한 John Ham
한태정 Taijung Han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시민협회 시민권 워크샵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8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회장 이경해)가 주최한 무료 시민권 취득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된 시민권 워크샵에는 약 30여명 한인들이 몰려 예정시간인 2시보다 앞당겨 와 대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워크샵은 남녀노소를 아우른 자리가 되었고 신청자들은 시민권 신청문제와 관련된 자녀 대학 진학 장학금 및 취업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날 시민권 신청서에 있어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와 서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민협회의 이사장 겸 변호사인 김성군 변호사가 각종 시민권 신청 사항에 대해 서명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

또한 시민협회는 김성군 변호사를



성요한 한인교회에서 열린 시민협회 주최 시민권 취득 무료 워크샵에 참석한 한인들의 모습

비롯해 박영찬 수석 부회장, 김성혁 이사, 리디아 신 대변인, 임균택 사무차장이 참석해 시민권 신청 서류 점검 외 사진 촬영, 신분증 복사, 법률사항 점검 등 시민권 신청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워크샵에 참석한 신청자들

을 위해 처리해 주었다.

보스톤에서는 지난 20여년이 넘게 지속적으로 시민권 워크샵이 개최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시민협회 정치인턴 미셸 우 위원 펀드레이징 행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시민협회(회장 이경해)가 오는 18일 화요일 오후 7시 울스턴 하버드 애비뉴에 위치한 한국가든(Korean Garden)에서 보스톤 광역시의원인 미셸 우씨의 펀드레이징 행사를 개최한다.

미셸 우 시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28나이에 최연소의 나이로 보스톤 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됐다. 변호사이자 사회 운동가인 우 의원은 보스톤 시의원 역사상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이자 아시아계 여성이다. 현재 우 의원은 중소기업과 창업, 혁신, 문화 예술 위원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시민협회의는 진 박(보스톤 칼리지), 에스더 최(그린오프 고등학교), 알렉스 박 (뉴튼 노스 고등학교), 민기 서(렉싱턴 고등학교), 스티븐 박 (뉴튼 노스 고등학교)군을 정치인턴으로 선발했다. 선발된 정치인턴들에게는 여름방학 6주~8주 동안 주지사, 연방상원위원 및 시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의 모금만찬 개최 및 정치장학생 선발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민협회는 지난 해까지 약 60명의 정치인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펀드레이징 관련 문의사항은 이경



미셸 우 시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28나이에 최연소의 나이로 보스톤 광역시의원으로 선출됐다

해 회장 (508-962-2689), 임균택 사무차장 (857-207-7711) 혹은 김성군 이사장 (617-799-7033)에게 연락하면 된다.

jham@bostonkorea.com



미동부지역 한인탁구연합회 임시총회가 지난 1일 아리수 식당에서 있었다

보스톤 탁구대회 10월 개최

미 동부 탁구인 연합회에서 홍보의 자리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미동부지역 한인탁구연합회는 지난 1일 펜실베이니아주 블루벨(Blue Bell)에 위치한 아리수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오는 9월 뉴욕 탁구대회와 10월 보스톤 탁구대회에 대한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보스톤 탁구협회 이진원 회장은 오는 10월 10일에 개최되는 “한인회장배 대회에도 동부협의회에서 적극 지원을 받았다”며 “보스톤 한인회장(회장 김경원)이 \$2000 지원금과 더불어 필요 시 스쿨 버스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보스톤 각 교회는 물론, 3인 1조로 치러지는 단체전에 있어 가족 등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동참하고 참가하기를 부

탁한다”고 말했다. 임시총회는 양창원회장이 전미주한인탁구협회장에 선출되면서 뉴저지 한인탁구협회장인 제영신 회장을 미동부지역 한인탁구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임시총회 의원으로는 워싱턴 D.C. 양선영 회장, 메릴랜드 오세백 회장, 필라델피아 문선희 회장, 뉴저지 제영신 회장, 보스톤 이진원 회장, 델라웨어 손영오 회장 등 지역 대의원이 참석했다. 총회를 마친 이날, 몇몇 임원들은 필라델피아탁구협회 탁구장에서 협회원들과 친선게임을 가졌다.

보스톤 탁구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스톤탁구협회 이진원 회장 (617-645-6146)에게 연락할 수 있다.

jham@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인회 광복절 체육대회 토요일 개최

뉴잉글랜드 지역 각 한인회, 다양한 광복절 행사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뉴잉글랜드 각 지역 한인회에서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한인회, 뉴햄프셔한인회 및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행사 일정이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행사 일정

8월 15일 (토요일) 8.15 광복절 기념식 및 뉴잉글랜드 한인 체육대회를 워터타운 소재 아스널 공원 (Arsenal Park)에서 개최한다.

일시: 8월 15일 오전 9시

장소: 아스널 공원,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종목별 \$150, 4 종목 모두 참가시 \$500, 가족 및 개인(번외 경기) 참가비 없음.

참가신청 및 문의: 781-933-8822, haninhoebo@gmail.com



올해 한인회 체육대회는 워터타운 아스널 공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작년 제 69회 체육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뉴햄프셔한인회 행사 일정

뉴햄프셔한인회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8월 15일 토요일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광복절 기념식 및 친선 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일시: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Greenland United Methodist Church), 87 Great Bay Road, Greenland, NH 03840

참가신청 및 문의: 603-767-1356 (회장: 박선우)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행사 일정

로드아일랜드한인회(회장 이동문)가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70회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Bobby Hackett Theater CCRI Knight Campus 에서 개최한다.

이동문 회장은 지역 한인들에게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여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광복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rikorean.org)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동문 회장(401-451-8518)에게 연락을 하면된다.



로드아일랜드한인회는 오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70회 8.15 광복절 기념 행사를 Bobby Hackett Theater CCRI Knight Campus 에서 개최한다

행사일정

일시: 8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Bobby Hackett Theater CCRI Knight Campus, 400 East Ave. Warwick, RI

jham@bostonkorea.com

유수레 화가 전시회 <Traveller's Mark>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뉴잉글랜드 최초의 한인 미술관을 운영해온 유수레 화가의 전시회가 “트레블러스 마크 (Traveller's Mark)”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린다.

뉴햄프셔 라이(Rye)에 위치한 수레아트 갤러리(Soorye Art Gallery)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화가들과 미국 화가들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유수레 화가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 화가들과 미국 화가들의 작품을 비교하며 예전 행사들과 달리 변화를 주고 싶었다”며 “관객들이 평소와 다른 외국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도전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주제 트레블러스 마크는 ‘작가들과 화가들의 여정을 한 초점으로 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 많은 고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년 넘게 수레아트 갤러리를 운영해온 유수레 화가는 “뉴잉글랜드에서 한인 미술관을 운영하기에 있어 한인들의 관심이 큰 원동력이 된다”며 “한인 작가들과 고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수레 화가는 “보스톤에서 45분 가량 떨어져 있어 가까운 거리



뉴잉글랜드 최초의 한인 미술관을 운영해온 유수레 화가의 전시회가 “트레블러스 마크(Traveller's Mark)”라는 주제로 지난 8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린다

는 아니지만 라이 비치 (Rye Beach)와 10분 가량 거리에 위치해 있어 여유롭게 바닷가로 바람 쐬러 올 겸 둘러 보기 좋은 곳이다”고 말했다.

‘트레블러스 마크’ 전시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전시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넓은 공간의 파킹 또한 무료로 할 수 있다.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수레아트 갤러리 웹사이트 (sooryeartgallery.com)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sooryeartgallery@gmail.com로 하면 된다.

전시일정
일시: 2015년 8월 8일~9월 4일
장소: 수레 아트 갤러리 (11 Sagamore Road, Rye, NH 03870)
jham@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영화 Departed 중 매트 데이먼의 럭셔리 펜트 하우스에서 보이는 주청사

영화로 만나는 보스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부유한 집안의 하버드 법대생 올리버와 가난한 음대생 제니의 신분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러브 스토리' (1970년작).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캠퍼스에서 남녀 주인공이 다정하게 뛰어다니던 유명한 장면은 실제로 하버드 야드에서 촬영되었다. 그러나, 촬영 당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 이후로는 캠퍼스에서의 모든 영화 및 방송 촬영을 금하는 학칙을 만들었다는 후문. 비록 실제 하버드에서 촬영된 영화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어디선 본 듯한데? 아, 거기!" 라며 손뼉을 탁 치게 될, 영화 속 배경이 된 또 다른 보스톤의 촬영지로 떠나보자.

▶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 1997)

우리에게는 MIT 돔(Dome)으로 더 잘 알려진 맥로런(McLauren) 빌딩을 비롯하여, 캠브리지와 사우스 보스톤 곳곳에서 촬영이 이루어 졌다. 윌 헌팅(맷 데이먼 분)은 당시 하버드 스쿼어에



위치한 바우 앤드 에로우 펌(Bow and Arrow Pub)에서 스카일라(미니 드라이버 분)를 처음 만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곳은 사라지고 없다. 사실, 외부 샷을 제외한 모든 실내 장면은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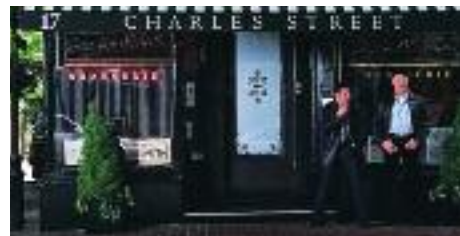
토론토에 위치한 업프론트 바(Uprfront Bar)에서 촬영 되었다고 한다.

한편, 영화 초반부 윌과 척키(벤 애플렉 분)가 친구들과 함께 찾은 바는 사우스 보스톤에 위치한 우디스 엘 스트리트 터번(Woody's L Street Tavern)으로 아직도 배우들의 사진을 벽면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손(로빈 윌리엄스 분)이 재직하던 학교로는 병커피 커뮤니티 컬리지(Bunker Hill Community Colleg)가 나온다. 아쉽게도 MIT 교실 및 손의 연구실 실내 장면은 대부분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촬영했다는 후문.

▶ 디파티드(The Departed, 2006)

마피아와 손잡은 부패한 경찰 콜린(맷 데이먼 분)의 럭셔리 펜트하우스는 사실, 트레몬트 스트리트 120번지에 위치한 서피 법학 대학 건물로, 주청사의 골든 돔이 마주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아파트 실내 또한 동 건물 꼭대기 층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촬영되었다.



프랭크 코스텔로(잭 니콜슨 분)가 조직의 아지트로 사용하던 찰스 스트리트 브래서리 식당(Charles Street Brasserie)은 실제로는 찰스 스트리트 17번지에 위치한 세탁소인데, 외관을 식

당으로 살짝 바꾼 후 촬영하였다고 한다. 내부 촬영은 맨하탄 소호에 위치한 라울즈 레스토랑(Raoul's Restaurant)에서 이루어 졌다. 라울즈 레스토랑은 인기 미드 '섹스 앤드 시티(Sex and the City)' 가 촬영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콜린이 소속되어 있던 보스톤 경찰청 산하 특별 수사반의 건물은 노스 스테이션 가까이 위치한 에리히 린데만 헬스 센터 할리 빌딩(Erich Lindemann Health Center, Hurley Building)으로 실제로는 보스톤 경찰청 건물이 아니다. 제작진은 건물 전체가 잿빛 시멘트 톤인 이 건물이 보스톤 특유의 투박하고 거친 느낌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장소로 택했다고 한다.

참고로 잭 니콜슨이 연기한 프랭크 코스텔로는 실제 사우스 보스톤 출신이면서 아일랜드계 마피아를 이끌었던 악명 높은 화이트 벌저(Whitey Bulger)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탄생된 캐릭터이다. 19명을 살해한 혐의로 FBI의 수배를 받았지만, 1995년부터 무려 16년간 도피행각을 벌이다가 2011년 체포되었다. 화이트 벌저를 다룬 영화이자 보스톤을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영화 블랙 매스(Black Mass)가 내달 개봉 예정이라 하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 테드 (TED, 2012)

영화의 대부분이 보스톤 시내에서 촬영되어 영화 상영 내내 익숙한 장소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주인공인 테드가 가상의 캐릭터인 것을 감안, 오히려 촬영장소는 최대한 현실 그 대로를 보여줘 영화의 리얼리티를 살리려 한 제

작진의 의도가 영화 곳곳에서 보인다.

존(마크 월버그 분)이 여자친구 로리(릴라 쿠니스 분)와 함께 사귀던 4주년 기념 식사를 한 곳인 레스토랑 차오 베아(Ciao Bella)는 실제로는 헌팅턴 에비뉴 1번지에 위치한 소렐리나(Sorellina)로 보스톤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이탈리아 식당이다.

존 커플과 테드 커플이 엉망이 된 더블 데이트를 즐긴 곳은 해리슨 에비뉴 560번지(560 Harrison Ave.)의 가스라이트 브래서리(Gaslight Brasserie). 톰 크루즈와 카멜론 디아즈 주연의 영화 '나이트 & 데이(Knight and Day)' 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존과 로리가 결혼식을 올린 사우스엔드에 위치한 유니온 유나이티드 감리교회(Union United Methodist Church)를 비롯하여 보스톤 아쿠아리움, 보스톤 퍼블릭 가든 그리고 펜웨이 스타디움 등 영화 곳곳에서 보스톤을 만날 수 있다.

스크린에서 만난 보스톤 명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다면, 온로케이션투어즈(online-tour.com)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자. 보스톤 촬영지와 관련한 다양한 투어가 마련되어 있다.

htj@bostonkorea.com

오바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17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임대,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어린이 식품에 숨겨진 설탕의 진실



때문에 좀 더 세심히 재료성분(ingredients)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영양 성분표에 12g의 당이 표시되어 있다고 치자. 재료 성분에서 사과, 물 만이 나와있다면, 12g 당은 인공적으로 첨가된 당이 아닌 사과 자체 내의 당이므로 첨가된 당은 0g이다. 문제는 단 맛을 내는 감미료가 설탕 이외도 많다는데 있다. 보통, maltose, sucrose, high fructose corn syrup, molasses, cane sugar, corn sweetener, raw sugar, syrup, honey, fruit juice concentrates 등이 단 맛을 추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감미료이니, 영어 단어 자체를 익혀두면 도움이 될 듯하다.

그렇다면 특히 구매 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어린이 식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트

칼슘이 풍부한 요거트는 우유 자체가 지닌 당(lactose)을 함유하고는 있으나, 보통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요거트의 경우 맛을 위해 많은 양의 당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있다. 보통 성인

들이 먹는 그릭 요거트의 경우 4g 정도의 당을 함유하나, 아이들을 위한 그릭 요거트의 경우에는 약 10g의 당이 함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시큼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면 일반 플레인 요거트에 살짝 잼을 섞어 먹일 것을 권한다.

시리얼

평균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리얼은 일반 시리얼에 비해 40%이상 당 함량이 높다. 이는 초코칩 쿠키를 먹을 때 보다는 30g당 2.5 티스푼의 설탕을 더 섭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섬유질이 풍부해 건강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게 되는 시리얼도 구매 시 반드시 첨가된 당을 살펴 봐야 한다.

그라놀라 바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편한 간식거리로 큰 인기인 그라놀라 바이지만, 보통 당 함량이 8g에서 12g에 이

른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료를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글루텐 프리, 유기농 그리고 내추럴 푸드

언제부터인가 "Gluten-free, Organic, All-natural" 표기가 되어 있으면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은 유기농 코코넛 설탕도 설탕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결국, 아이들 먹거리는 최대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고 설탕, 색소, 기름 등이 적게 들어간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천연 식재료를 많이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htj@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칼슘 및 유산균 섭취에 으뜸인 어린이 요거트와 곡류로 만들어져 섬유질이 풍부한 어린이 시리얼로 간단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 아이. 영양 간식으로 인기 만점인 그라놀라 바까지. 요거트, 시리얼 등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를 위해 만든 거니까' 하는 믿음으로 '어린이 식품'을 선택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 식품'에 '성인을 위한 식품'보다 더 많은 양의 설탕이 첨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를 비롯하여 미 소아과협회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비만과 당뇨의 주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당(sugar)섭취를 꼽았다. 설탕의 유해성이 많이 알려진 요즘, 가정에서 요리 시 사용하는 설탕의 양은 감소 추세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첨가된 당'(Added Sugar)의 섭취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설탕 1g당 발생하는 열량은 4kcal. 영양소 간 균형을 고려한 WHO의 성인 1일 설탕 권장 적정 섭취량은 성인이 하루 2000kcal를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25g 이내다. 원래 50g였으나 최근 25g으로 대폭 낮춰 권고하고 있다. (과일, 우유 등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 존재하는 당은 제외). 이는 약 6티스푼에 해당하는데, 실제 미국 성인 평균 하루 설탕 섭취량은 19.5 티스푼이다. 문제는 '어린이 식품'의 경우 보통 맛을 위해 설탕을 첨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많은 양의 당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마치 건강한 식품으로 포장된 '어린이 식품' 구매 시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아직까지 영양 성분표(Nutrition Facts)에는 재료 자체가 지닌 당(natural sugars)과 식품 제조업체가 인위적으로 첨가한 당(added sugars)을 구분해 표시하고 있지 않기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의한의대 42기)

안동 선재, 외근보통 취급 / 명저산 주사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cn.com

"광산의 환한 미소가 마뽀담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업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시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풍,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
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올겨울 날씨는 지난 겨울만큼 혹독하지 않을 듯

엘니뇨 영향으로 겨울에 눈폭풍 자주 올 것

기온은 따뜻하고 눈은 평균 적설량 예상돼



올해 겨울은 기온도 따뜻하고 눈도 평년 수준으로 올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발표되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다가오는 매사추세츠의 겨울이 지난 겨울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발표되었다. 장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 겨울은 지난 겨울에 비해 눈보라는 많이 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온은 훨씬 따뜻하며 적설량도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기상 예측을 하여 날씨를 알려주는 어큐웨더(AccuWeather.com)의 장기 예보팀 수석 기상학자 밥 스머벡은 "지난 겨울처럼 보스톤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스머벡은 올해 겨울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눈폭풍이 자주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니뇨는 주기적인 날씨의 패턴으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 온도가 평균 이상으로 올라갈 때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강할 때 매사추세츠 주는 평균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고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겨울 몇 달 동안 적설량은 감소하게 된다.

스머벡은 엘니뇨 외에 다른 기상학적 요소들의 영향으로 매사추세츠 동부 해안으로 거대한 차가운 공기의 기운이 몇 차례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이 차가운 기운이 엘니뇨로 인해 생성된 습도가 높은 공기와 만나면 대규모 눈폭풍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행히 올해 겨울에는 차가운 공기와 습도가 높은 공기가 장기간 함께 머무를 가능성이 낮다고 스머벡은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올겨울 보스톤의 적설량은 평균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겨울 동안 보스톤 시의 평균 적설량은 43인치다. 지난 겨울에

는 예외적으로 110.6인치의 눈이 내렸으며, 2월 한 달 동안만 64.8인치의 눈이 내렸다.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글로브에 따르면 지난 겨울 폭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결심한 매사추세츠 주민들도 있다.

어큐웨더의 기상 예보팀은 2월에 보스톤에서 기온이 가장 낮게 내려가고 눈도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기온과 적설량이 평균적인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좋을 것이라는 반가운 기상 예측이다.

jsi@bostonkorea.com



작년에 레드삭스 스프링 캠프에 참여한 58명의 선수 중 21명이 씹는 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보스톤 시장, 씹는 담배 금지안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이 씹는 담배를 포함해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 제품을 보스톤에 위치한 모든 야구장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보스톤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는 물론, 동네 한 칸에 위치한 작은 야구장에도 적용된다.

월시 시장은 시 조례를 통해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보스톤 시 의회에 지난 10일 접수했다. 월시 시장은 지난 주에 레드삭스 투수였던 커트 실링과 함께 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씹는 담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링은 과거 구강암에 걸렸다가 완치되었다.

월시 시장이 제안한 법안에 명시된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 제품'은 '입이나 콧구멍으로 흡입할 수 있는, 자르거나 가루로 빻았거나 잎 형태의 담배'가 포함된 모든 제품이다.

또한 이 법안은 야구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야구 선수와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야구장 직원과 팀 관계자가 모두 해당된다.

월시 시장이 제안한 법안이 보스톤 시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한 사람은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레드삭스는 월시 시장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인 취급하는 '브랜즈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 기억회복
- 면역력 증진
- 장수 예방
- 간헐산상 기능 개선
- 항암효과
- 혈액순환 개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정관장 홍삼의 엄격한 제품 관리 기준은 의약품 제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한국, 일본 GMP 및 HACCP 인증을 획득할 정도로 품질면에서 우수합니다.

6년근 홍삼의 진한 피부과학 동인비

전화주문 서비스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503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버라이즌, 약정 요금제 전면 폐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태정 기자 = 버라이즌은 이번 주 목요일(8월 13일)부터 일제히 자사 요금제에서 약정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약정제란, 신규 가입이나 새 단말기로 업그레이드 할 경우 보통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지원받는 형식의 요금제이다. 약정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보통 \$175에서 경우에 따라 최대 \$350까지 약정 위약금이 붙는다.

버라이즌에서 약정제를 전면 폐지하고 무약정제(No Contract Plan)으로 전환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일단 예상 월 핸드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개통비, 데이터 플랜, 라인 비용을 알아야 한다.

▶ 단말기 비용: 단말기 구매를 일시불로 하지 아니면 24개월 할부 형식으로 구매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약정제가 사라지면서 단말기 지원의 개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할부 형식으로 구매할 경우 2년 무이자로 가능하다.

▶ 개통비(Activation Fee): 약정제 폐지와 함께 개통비는 지불하지 않는다.

▶ 데이터 플랜 비용(Data Plan): 스몰(1GB)은 월 \$30, 미디움(3GB)은 월 \$45, 라지(6GB)는 월 \$60, 엑스트라 라지(12GB)의 경우에는 월 \$80로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 라인 비용(Line Access): 약정제의 경우, 월 \$40였으나, 약정제 폐지 이후부터는 월 \$20로 조정되었다. 2년

Plan	Storage	Price	Device	Price
S	1 GB	\$30	Apple iPhone 6	\$27.08 /mo
M	3 GB	\$45	Apple iPhone 5c	\$18.74 /mo
L	6 GB	\$60	Apple iPhone 5s	\$22.91 /mo
XL	12 GB	\$80	Apple iPhone 6 Plus	\$31.24 /mo

약정제의 기존 가입자도 계약이 만료되면 \$20로 자동 조정된다.

iPhone 6를 구매해 3G 데이터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기존 약정제 하에서는 24개월간 \$2,159 (단말기 비용 \$199 + 첫 달 개통비 \$40 + 라인비 월 \$40 + 2GB 데이터비 월 \$40)의 비용이 나오는 반면, 약정제 폐지 후에는 24개월간 \$2,209 (단말기 비용 \$649 + 첫 달 개통비 \$0 + 라인비 월 \$20 + 3GB 데이터비 월 \$45)의 비용이 예상된다. 즉, 약정제 대비 24개월간 총

\$5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3GB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지(6GB)와 엑스트라 라지(12GB) 선택 시에는 기존 약정제 대비, 확실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2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요금에 변화는 없다.

htj@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미국내에서 두번째로 진보적인 주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이 진보적 주로 캘리포니아와 케네딕트 가운데 실제적으로 의원들은 대부분이 중도적

공화당 의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 하원 모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80%가 넘는다. 얼마 안 되는 공화당원들도 극히 중도적인 성향을 보인다. 매사추세츠 공화당 의원들은 오클라호마의 민주당 의원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며 알칸사스의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미국내에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가장 진보적인 의회를 보유했지만 의회는 상당히 중도적인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화당 의원들은 중도성향에 가까우며 민주당 의원들은 중도 진보의 성향을 보인다. 따라서 매사추세츠 의회는 미국 연방 의회와 달리 거의 양극화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보스톤 글로브가 11일 조지타운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 수가 많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뉴욕, 버몬트의 민주당 의원에 비해 덜 진보적이며 중도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의원들은 레드 스테이트로 불리는 아리조나와 위스콘신의 민주당 의원들보다 중도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사추세츠 주 유권자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은 민주당 성향이 지만 보수적인 색채도 강하다. 특히 보수 라디오가 인기를 끌고 있고 미트 롬니, 찰리 베이커 등 공화당 지지자들의 당선에 잦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매사추세츠주가 두번째 진보적인 주로 분류된 것은 거의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실용수업**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매년에도 New Star Realty의 기사도입니다.
10년째 보스톤 지역 최고의 실용수업 강사입니다. (MBA)
을 대표하는 REALTOR-CAMBRIDGE 지역 1위 이상
실용수업 강사로서 10년 이상의 실용수업 강사로서
강연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 강사 시연과 제대본을
드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96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0
Tel: (617) 550-4996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 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eoren88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남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근처, 역, 한마루, 사출 실용수업, 침실과 거실 1-2분 거리
 내년 8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풀스런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교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분 안에 10점 일 장도로
 학교가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방문상은 머리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98688>

뉴욕주 네일살롱에 임금보증보험 의무화... 한인업소 타격 우려

"10월6일까지 4만~12만5천달러 보험 가입해야"...임금채불 종업원 보호장치

한인 네일살롱 "문닫을 업소 늘것"...6개월~1년 유예 요구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뉴욕 주가 네일살롱 업주들에게 오는 10월 6일까지 4만~12만5천 달러 규모의 임금보증보험(Wage Bonds)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종업원 노동보호 조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네일살롱 업주의 착취 행위가 적발되고, 법원이 체불임금 지급을 명령했을 때, 이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는 취지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매년 수천 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발생하는 업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6개월~1년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처의 목표는 네일살롱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지급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업주가 경제적 이유로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또 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발뺌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다.

NYT가 제시한 한 사례에 따르면, 2012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해 종업원 6명에게 제소당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살롱

업주는 47만4천 달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11만 달러 밖에 모으지 못했다.

이 업주는 충분한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NYT는 판결 전 그가 수백 만 달러의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업주에게 고용기금보험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는 법적으로 받아야 할(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수 있는 기금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규모는 사업장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NYT는 2~5명의 풀타임 직원을 둔 업소의 경우, 보험 규모는 최소 2만 5천 달러이고 업주는 매년 이의 2~3%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뉴욕 한인네일협회장은 직원 10명 미만인 업소는 4만 달러, 11~25명은 7만5천 달러, 26명 이상은 12만5천 달러로 통지받았다면서, 보험요율을 5% 적용하더라도 매년 2천~6천 250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상호 뉴욕 한인네일협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금보증보험이 개정된 주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한인 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6개월~1년의 유예를 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임금보증보험이 미국 보험시장에서는 생소한 개념인 데다, 보험요율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영세한 한인 네일살롱들로서는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어서, 만약 시행된다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뉴욕 주는 주 정부가 선정한 9개의 보험회사를 조만간 네일살롱에 제시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10월 6일 이후에는 가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영업정지를 포함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NYT는 전했다.

뉴욕 주는 지난 5월 NYT가 네일살롱의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실태를 고발하면서 네일살롱에 대해 '종업원 권리선언문' 부착, 종업원에 대한 장갑·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무허가 네일살롱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뉴욕 주의 네일살롱은 5천~6천 곳이며, 이중 한인업소는 3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quintet@yna.co.kr



스냅챗, 직원 1인당 기업가치 '1위'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기업의 시장가치를 직원 수로 나눈 '직원 1인당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는 스냅챗(Snapchat)이라고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포브스가 11일 보도했다.

포브스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가치를 조사한 결과 스냅챗이 4천800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

비상장 회사인 스냅챗의 시장가치는 가장 최근 자금조달(펀딩)에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스냅챗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진을 보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위인 페이스북의 1인당 기업가치는 2천400만 달러로 스냅챗의 절반 수준이었다.

3위는 비상장회사인 위워크

(WeWork)로 1인당 1천900만 달러, 4위는 핀테레스트(Pinterest)로 1인당 1천800만 달러였다.

위워크는 사무실 공유 서비스를, 핀테레스트는 사진기반 SNS를 각각 제공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다.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의 1인당 기업가치는 1천500만 달러로 5위에 올랐다.

구글이나 트위터 등은 1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포브스는 스냅챗의 1인당 기업가치가 높지만 이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즉, 220억 달러에 페이스북에 인수된 와츠앱의 1인당 기업가치가 4억 달러였으며, 인스타그램은 1인당 8천만 달러의 시장가치로 페이스북에 매각됐다.

sungje@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arks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피당사함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최지희 헤어 (Elise Image)
휴일없는 미용실

여름의 산뜻함을 찾아 드립니다

- 남녀 헤어
- 피부관리
- 네일
- 제모
- 속눈썹 연장
- 바디 마사지
- 영구화장
- 속눈썹 연장 사술 지도

118 Cordish St. Southend MA 0211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Residence Home: 617.818.5511 - 7pm
Sax: 617.818.5511
머리카락 구별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트럼프, 미 대선 풍향계 아이오와서도 지지율 1위...22%

안보·경제 분야 1위...여성비하 논란 후 오히려 지지율 올라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경선 후보가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州) 여론조사에서 또 한 차례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론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 CNN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합동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 22%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는 앞서 이번 주 발표된 서퍽 대학 여론조사의 17%, 퍼블릭폴리시폴링(PPP) 조사의 19% 보다 오른 수치이다.

전 신경외과의사인 벤 카슨 후보가 14%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 6일 폭스 뉴스 공화당 경선 후보 토론회 이전 1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카슨 후보는 토론회 이후 다소 오르고 있다.

반면 최근 아이오와 여론 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던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지지율이 9%까지 떨어지며 3위에 머물렀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가 8%로 4위에 올랐으며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최고경영자(CEO)와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7%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젠티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와 함께 5%의



지난 6일 미국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폭스뉴스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가 토론회 장소에 들어서며 엄지 손가락을 세웠다

저조한 성적을 냈으며 다른 후보들은 3% 미만에 그쳤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폭스뉴스 토론회에서 여성 사회자인 메건 켈리와 설전을 벌여 앞선 막말 논란에 이어 여성 비하 논란에까지 휘말렸지만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높은 신뢰도를 얻으며 지지율 선두를 지켰다.

그는 분야별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불법 이민과 테러 대응 등 안보 분야에서 각각 35%와 21%로 1위에 올랐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무려 37%를 얻어 독주했다.

트럼프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후 대선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 후보와 맞서 이길 것 같은 후보에서도 22%로 1위에 올랐으며 중앙 정치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에서는 44%로 압도적인 응답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아이오와 유권자 2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공화당 당원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544명으로 파악됐으며 오차범위는 ±4%p이다.

아이오와는 대선이 열리는 해 1월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열린다. 인구가 300만으로 적고, 선거인단도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가장 먼저 당원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대선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지역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프랭클린피어스·보스턴헤럴드의 민주당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이 44%를 얻어 대세론을 형성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37%)을 제쳤다.

findlove@news1.kr

샌더스가 힐러리 앞선 첫 여론조사...힐러리 난관에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출마자들 가운데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12일 미국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프랭클린피어스대학이 보스턴글로벌신문과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44%를 기록했다.

클린턴 전 장관을 선호한다는 의견은 37%에 머물렀다.

뉴햄프셔주에 거주하는 민주당 지지 유권자 44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간 실시된 이번 설문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을 선택한 사람도 9%였지만, 다른 민주당내 대선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은 1% 전후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뉴햄프셔주에 국한됐고 민주당 대선주자 토론회가 열리기 전이라는 등의 여러가지 감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유세하는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안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샌더스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앞선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스턴글로벌은 설명했다.

이 신문은 응답자의 80%가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 '기쁘다'고 답한 응답자가 35%뿐이었음을

지적하며 클린턴 전 장관이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직면했다"고 풀이했다.

민주당에서 '샌더스 돌풍'이 불어온다는 징후는 이미 감지돼 왔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집계에서 샌더스 의원의 지지율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5% 미만이었지만, 지난 6월 들어 10%선을 넘긴 뒤 최근에는 20%선에 육박하고 있다.

smile@yna.co.kr

'요동치는' 미 대선판... 대세론 사라지고 불확실성 커져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8일)가 1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대선판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다.

'힐러리 대세론', '클린턴-부시가 대결' 등 당초 예상했던 구도는 온데간데없고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내부적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초기 대선판이 예측불허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당에선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이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턱밑까지 추격했고,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의 순위는 급속히 재편되는 분위기다.

◇예사롭지 않은 샌더스 '돌풍'...힐러리는 수세국면

민주당에선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이미 힐러리 대세론이 굳게 자리잡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60%를 넘나들며 여야를 통틀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데다가 '클린턴 가문'이라는 후광까지 등에 업고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 자리를 쉽게 꿰찰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3월 첫 폭로로 불거진 '이메일 스캔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호감도가 급락했다. 이달 3일 공개된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 호감도는 37%에 그쳐 6월의 44%보다 7% 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국무장관 재직 시절 보기에 따라 국가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까지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통해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더 큰 문제는 샌더스 의원의 무서운 기세다.

오리건 주 포틀랜드(2만8천명),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2만7천명), 워싱턴 주 시애틀(1만5천명) 등 가는 곳마다 구름관중을 동원하는 능력을 보이더니 급기야 대선풍향계로 통하는 뉴햄프셔주에서 클린턴 전 장관을 처음으로 제쳤다.

◇트럼프 승승장구·피오리나 선전...부시는 존재감 미미

공화당은 한마디로 '트럼프 관'이다. 상대 후보들의 말실수조차 전혀 부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트

럼프가 '블랙홀'처럼 유권자와 언론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다.

트럼프는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등 막말과 독설로 점철된 지난 6월16일의 대선 출사표가 오히려 당내 강경세력들의 결집을 끌어내면서 한자릿수대의 미미한 지지율이 금세 2위로 올라서더니 이제는 2위 후보와 더블스코어의 차이로 확고부동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실제 모닝컨설턴트 여론조사(8월7~9일·2천29명) 결과 공화당원 및 공화당 성향 무소속 응답자 사이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은 32%를 기록해 첫 TV 토론 직전의 25%에 비해 무려 7% 포인트 상승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와 함께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최고경영자의 부각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첫 TV 토론 때 상위 10위에 들지 못해 군소후보 7명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리그에서 토론을 벌여야 했지만 소신 발언과 명쾌한 답변으로 단번에 선두권으로 부상했다.

◇최대 변수 트럼프 공화 후보냐, 3당 후보냐...민주 반사이익?

트럼프는 공화당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도 무소속 또는 제3당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첫 TV 토론에서 경선결과 승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일하게 "현 시점에서는 약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11일 CNN 인터뷰에서도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문(3당 또는 무소속 출마)을 열어놓고 이용할 수도 있다"고 거듭 밝혔다.

공화당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가 승리하면 대선 승패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히스패닉계와 여성표 공약이 더욱 힘들어져 본선 승리 가능성이 작아지고, 반대로 패배해 그의 공언대로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결정적인 국면에서 적전분열 양상을 노출하면서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 돌풍이 일종의 '뿔날이페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선 승패에 따른 트럼프의 향후 행보를 점칠 수 없는 데다가, 지금 당장은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여론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끌고 있어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sims@yna.co.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볼텍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볼텍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월요일~목요일 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 11:30AM~12:00AM
 103 Prospect St, Cambridge, MA 02148



Parking Information

1. 103 Prospect St. (near 103 St.)
 Near 103 St. After Turn R. Open 10:00am - All Day
2. 103 St. (near 103 St. & Prospect St.)
 1. Look for Sign: (Street 7 Car)

• 103 St. (near 103 St. & Prospect St.)
 1. Look for Sign: (Street 7 Car)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들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품격향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이쁨 선사하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어크
- 국산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군 "4일 DMZ 지뢰 폭발은 북 계획적 도발"

북, 군사분계선 넘어와 우리 측 GP 인근에 '목함지뢰' 매설...증거물 43점 확보

합참 "남북 불가침 합의 위반한 비열한 행위...혹독한 대가 치르게 할 것"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은 것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국방부 전비테세검열단은 이날 오전 사고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영호 국방부 전비테세검열단 부단장은 "이번 사고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지뢰 3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이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잔해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목

함지뢰에 사용되는 용수철과 공이, 송진이 발라진 나무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안 부단장은 밝혔다.

특히 해당 잔해들 중 철재 부품들의 상태가 녹이 없이 온전한 것도 목함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특정 부대에 의해 보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지뢰폭발 사고는 해당 부대가 관할하는 GOP(일반전초)에서 좀더 북측으로 자리잡고 있는 GP(감시초소)와 GP를 잇는 추진철책에 설치된 통문에서 발생했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인력이 DMZ에 대한 순찰을 진행할때 통과하는 문으로 지뢰는 통문 기준 북측과 남측에 각각 2발, 1발씩 매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단장은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에 1발, 북쪽으로 40cm 지점에 2발이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지뢰가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비로 인한 유실 등으로 해당 지점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 부단장은 "해당지역은 남고북저

지형에 배수가 용이한 마사토 토양"이라며 "또 지뢰가 북측에서 유실됐다면 추진철책 일대에 유실된 흙이나 수목 등 부산물이 쌓여 있어야 하나 그러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은 목함지뢰의 매설위치와 위장상태, 우리 군의 작전활동 주기 등으로 보아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우리 군의 수색대는 사고 발생 불과 열흘여 전인 지난달 22일에도 DMZ순찰을 위해 해당 통문을 사용했으나 당시에는 폭발 및 어떤 특이사항도 없었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 25, 26일에는 해당 지역의 집중폭우로 양측 모두 작전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북한군의 지뢰 매설 시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 사이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러 매설하지 않은 이상 그 넓은 추진 철책에서 하필 좁은 통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뢰가 매설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통문을 중심으로 우리 측 지역 25cm 지점에 지뢰가 매설된 것에 대



4일 오전 7시 42분께 육군 1사단 부대원들이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해서는 "통문 아래 쪽으로 약 14cm의 공간이 있고 이를 통해 5cm 높이의 북한 목함지뢰와 사람의 손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안 부단장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금번 사건은 북한군이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후 우리 작전병력의 이동로 상에 목함지뢰를 매설해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행위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이날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며 북한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도발로 부상당한 우리 측 장병은 김모 하사(23)와 하모 하사(21)다. 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둘 모두 다리에 치명상을 입어 결국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조치를 취한 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하 하사의 경우 양 쪽 다리에 치명상을 입어 결국 두 다리 일부를 모두 절단해야하는 중상을 입었다. seojiba@news1.kr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3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arist College Undergraduate (iv. 5) Graduate (i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Duney College
- Massachusetts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I. (617) /30-3/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UG. 14TH - AUG. 20TH,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and Instagram!

Biggest BACK TO SCHOOL SALE

It's that time again! The kids go back to school and Hmart's everyday savings gets even better!
 즐거운 새학기 맞이, 이번주 H마트에서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p>HAIJOREUM Aloe Vera Juice 해오름 알로에 베라 주스 All Flavors/1.5L \$1.99</p>	<p>KTOWN Dukbokki 케이타운 국물 떡볶이 All Flavors/ 1.07 - 1.32 lbs. \$4.99</p>
<p>HAITAI Honey Tong Tong 해태 허니통통 2.29oz. \$2.99</p>	<p>NONGSHIM Shin Ramyun 농심 신라면 박스 4.23oz. x 16ea./box \$10.99</p>
<p>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2.99</p>	<p>HELLO HOME Electric Kettle 헬로홈 전기 무선 주전자 F-725/Black/1.8L F-727/White/1.7L - ea. \$16.99</p>

TAX-FREE 2-DAY SAVINGS!

COME JOIN US FOR THE SALES TAX-FREE HOLIDAY WEEKEND.
ONLY ON AUG. 15TH & 16TH, 2015

8월 15일, 16일은 텍스프리의 날!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들을
 텍스없이 만나보세요~

AT HMART BURLINGTON STORE

한국에서 만든 하림 삼계탕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Harim 蔘鷄湯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214.88 ea./for

RICE CAKES STAY SOFTER & LONGER

MADE WITH KOREAN PATENTED TECHNOLOGY, ONLY JINGA RICE CAKES STAY SO SOFT, SO MOIST, EVEN AFTER REFRIGERATED.

한국의 특허기술로 만들어서
 냉장고에서도 말랑말랑 오래가는 진가떡

PACK YOUR BAG! IT'S OUR BACK TO SCHOOL SALE.

HELLO HOME COUPON SALE

즐거운 새학기 맞이, H마트 하우스웨어 특별쿠폰세일

YOU MUST BRING THE FLYER DISPLAYED IN THE STORE TO THE REGISTER IN ORDER TO REAP THE BENEFIT OF THE DISCOUNTS. THERE ARE MORE SALES ITEMS LISTED ON THE FLYER THAT YOU CAN CHOOSE FROM. DUE TO PRODUCT AVAILABILITY, SOME PRODUCTS MAY SOLD OUT SOONER.

백투스쿨 전단지에서 더 많은 세일 상품이 가득! 매장에 비치된 전단지를 확인해 보시고 더 큰 세일을 누리세요. (할인 혜택은 전단지 안에 있는 쿠폰만 가능합니다.)

AUG. 14TH - AUG. 27TH, 2015

HELLO HOME Elec. Mini Clip Fan \$12.99	YOBO HOME Elec. Glass Kettle \$19.99	HELLO HOME Tumbler \$7.99	HELLO HOME Single Coil Burner \$9.99
HELLO HOME Noodle Cooker \$16.99	HELLO HOME Modern Toaster \$16.99	HELLO HOME Well-Being Juicer \$49.99	Mellan Rabbit Slipper \$3.99

<p>백도/백천도 White Peach/White Nectarine \$1.99 lb.</p>	<p>Golden Kiwi 골드 키위 박스 \$21.99 box</p>	<p>Fuji Apple 후지 사과 \$1.49 lb.</p>	<p>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1.29 lb.</p>	<p>A GREAT ADDITION TO MILK. Mango 망고 박스 \$7.99 box</p>	<p>Beef Top Blade Steak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6.99</p>
<p>Hand-Sliced Pork Single Rib Belly 소금구이용 수제 생 삼겹살 lb. \$8.99</p>	<p>Sliced Beef Rib Eye for Bulgogi 냉동 소불고기 lb. \$6.99</p>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lb. \$5.99</p>	<p>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CT Butt Steak 양념 발림 돼지 목살 스테이크 lb. \$5.99</p>	<p>Whiting 생태 \$1.99 lb.</p>	<p>Squid 냉동 오징어 lb. \$1.99</p>
<p>Female Capelin 냉동 시사모 \$1.99 lb.</p>	<p>TONGTONGBAY Seafood Mix 통통배 해물모듬 1 lb. \$3.99</p>	<p>Unagi Kabayaki 우나기 6oz./pkg. \$4.99</p>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s. \$9.99</p>	<p>Kyo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s. \$9.99</p>	<p>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갑산 현미 15 lbs. \$9.99</p>
<p>SUHYUP Premium Roasted Seaweed 수협 전장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8.99</p>	<p>HAIJOREUM Korean Style Cold Noodle 해오름 냉장물 냉면 Pyeongyang/Green Tea 2.2 lbs. \$3.99</p>	<p>WANG DERM Coco Glace Dessert 왕덤 코코 글레이스 7.75oz. \$2.5 ea./for</p>	<p>KINGSFORD Match Light Charcoal 킹스포드 매치 라이트 charcoal 11.6 lbs. \$7.99</p>	<p>MABLE Quilted Indoor Slippers 메이블 퀼팅 실내 덧신 Pair \$1.99</p>	<p>ZOJIRUSHI Elec. Rice Cooker 조지루시 전기 밥솥 NHS-06/3cups - ea. \$34.99</p>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목함지뢰 세가지의 공통점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보스톤코리아 인사이트 : 세월호, 메르스, 그리고 목함지뢰 세가지의 공통점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컨트롤 타워 부재라는 고질병이다. 4일 아침 사고가 발생했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10일이다. 국방부는 사고 조사는 이틀이나 지난 후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4일이 지난 8일야야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경원선 복원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이희호 여사는 북한을 방문했다. 더구나 국방부 장관은 사고 이후 한 번도 대통령에 대면보고를 해본 적이 없다.

남북관계도 그렇다. 북한과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 없는 박근혜 정부는 그 동안 특하면 남북대화, 남북협력을 입버릇처럼 반복했다. 협상 자리에 앉으면 북한과 마찬가지로 자기 할 말만 하다 성과없이 결렬됐다. 이것은 신뢰 프로세스라고 말을 붙이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더구나 그나마 있던 실날 같은 대화 가능성도 이번 목함지뢰 도발로 손상됐다.

일부에서는 시원한 보복 공격을 외치고 있지만 과연 남침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심스럽다. 결국 북한의 이성적 판단에 북한의 안보를 담보해야 한다는 현실이 공포다. 이미 등골이 서늘해야 맞다. 북침을 주장하다 북한이 내려오자 제일 먼저 도망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갑자기 떠오른 것은 우연일까.

정치권, 북 지뢰도발 '늑장보고 · 부실대응' 논란 격화

여, 경계실패 · 보고체계 · NSC소 집에 갑론을박...계파 시각차

야, 청 겨냥 '컨트롤타워 실종, 오락가락 해명에 불신키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임형섭 기자 =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군의 경계태세, 안보당국 내부의 보고체계, 후속 조치와 수위에 대해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우리 군이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점, 지난 4일 지뢰 사건이 터진 뒤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정부가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점, 안보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8일야야 소집된 점 등이 주요 논란 대상이다.

여당 내부에선 친박계와 비박계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 정부 ·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란으로 정부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대해 "아군 진지에 혀로 쓰는 탄환인 설탄(舌彈)을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정부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적군이 아군을 공격했을 때에는 그 적군을 겨냥해야지 아군 지휘부를 겨냥하는 것은 결코 옳은 판단이 아니다"며 정치권의 논란이 '표적오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두 의원은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에 앞서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5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청와대 NSC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기에 사건 나흘 만에 회의를 여느냐"고 쏘아붙여 친박계 의원들의 '엄호'와 대조를 이뤘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

됐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건 조사를 거쳐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서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게 5일 오후라는 점에서 고위급회담 제안 등을 문제 삼은 유 의원의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우리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이 책임을 묻자면 2001년 이뤄진 DMZ 자연보호 합의가 문제"라면서도 "NSC가 소집이 늦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 · 늑장이었다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국방위 소속 백군기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다친 것이 4일인데, NSC를 8일에 개최했다.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 판단 시점을 4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착각했다고 말한다. 이러니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안영호 조사단장이 추진 철책 북쪽 지역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못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도 "청와대는 큰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하고 엇박자를 낸다.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라고 비판했고, 권은희 의원도 "국방장관이 한 차례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일주일이나 지나 실효성 있는 보복공격 대신 공여지책인 확성기 방송 조치만 시작했는데,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 후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

급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인데, 부처 간 판단이 공유가 안 된 것"이라며 "이러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보고체계가 문제 되는 것을 보면 대통령의 눈과 귀는 여전히 '심상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장악한 것이 틀림없다"며 "마냥 온정주의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zheng@yna.co.kr

지뢰에 다리 잃은 김정원 하사 "강경대응, 북한 의도에 넘어가는 것"

(성남=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부상당한 우리군 부사관 2명 중 1명인 김정원 하사(23)와 그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김 하사는 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 사고 당시 먼저 지뢰를 밟아 두 다리가 절단된 하도 하사를 부축해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지뢰를 밟고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다.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하사는 문 대표가 "지금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나)"고 묻자 "뉴스를 보니 이번 일로 우리가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하던데, 그건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며 "공격만이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하사는 이어 "이번 일 때문에 국방부가 지탄을 받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현장에서 모든 GP(감시초소) 근무원들, 후송 의료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김 하사의 이 같은 발언에 호응했다. 문 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조금씩 대응해야 할 건 아니라는 말이죠?"라고 반문하며 "길게 보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자신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고 소개하면서 "동료 팀원들에게 안부도 전해주고, 아까 말한 그분들의 노고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cho11757@new1.kr

한민구 "북한 GP타격 결정된 바 없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우선적 조치, 추가조치 생각 중"

(서울=뉴스1) 박상희, 김영신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군 233GP의 타격 가능성에 대해 "(타격을) 하고 안하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 "지뢰 도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고 지뢰 매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233GP의 타격을 고려했느냐"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한 장관은 "천안함 폭침 이후 DMZ에서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음에도 우리군의 DMZ 경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술적 차원에서 아쉬운 점이 두어 가지 있지만

경계 실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기에는 우리가 지키는 곳에서 발생한 것은 전부 경계 작전 실패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GP, GOP에 부여한 임무를 보면 적의 침투를 저지, 차단, 격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재 상황을 책임 을 운운하기 보다 우선 장병들이 적의 도발에 대비하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임무수행을 잘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선적 책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확성기 방송 재개가 합참이 밝힌 '혹독한 대가'의 방안으로 부족하다는 추궁에 대해서는 "확성기 방송 재개는 우선적 조치"라며 "추가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했느냐"는 물음에는 "검토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군에서 검토하고 하고 있음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누가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국방부가 건의하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작전에 투입됐던 수색 대원들과 함께 사고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수색대원들은 목함지뢰 폭발사고를 겪은 뒤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좀 더 살펴 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현실로

가족 75%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본인보다 자녀·손자녀·증손자녀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 비율 더 높아

(서울=한국일보) 김성한, 정준호 기자 = 인천 남동구 반지하방에 사는 최정선(76)씨는 1920년 봉오동전투에서 독립군 사령관을 맡은 최진동 장군의 손녀다. 독립운동가 3대인 그의 월수입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과 기초생활급여 30만원이 전부다. 겨울 난방비는 2만원, 여름 전기료는 900원을 넘지 않는다. 서울 고척동에서 10㎡(3평) 크기 가게를 하며 팔십 평생을 바람 잘 날 없이 산 한상조(79)씨의 조부는 독립운동가 한태석 선생이다. 역시 독립운동가 3세대인 그에게 남은 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월세방과 구멍가게. 뒤늦게 올해 1월부터 처음 받기 시작한 독립유공자 후손 연금 156만 8,000원이 전부다. 근근이 꾸려 오던 구멍가게는 지난해 길 건너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매달 적자다. 그래도 두 사람의 고단한 삶에서 버팀목이 된 건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자부심 하나였다. 본보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초로 독립운동가와 후손들 모임인 광복회 회원 6,831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와 함께 생활실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생존 독립유공자 26명을 비롯해 배우자 32명, 자녀(2대) 469명, 손자녀(3대) 509명, 증손자녀(4대) 53명 등 모두 1,115명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한씨나 최씨처럼 평생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치부가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당했다. 월 개인 소득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 구간엔 전체 75.2%가 몰려 있었다.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20.9%, 심지어 50만원 미만도 10.3%였다. 더욱이 3대를 넘어 4대 후손들로까지 가난은 대물림 되고 있었다. 월 개인 소득을 세대별로 보면 200만원 미만 구간에 독립유공자 본인(38.4%)보다 자녀(72.2%)와 손자녀

(79.2%), 증손자녀(62.2%) 비율이 더 높았다. 1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나눠봐도 독립유공자 본인(23%)보다 자녀(25.3%), 손자녀(37.9%), 증손자녀(24.5%)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설문엔 참여한 많은 응답자들이 연금생활자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소득수준은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최저생계비(166만 8,329원)와 비슷하거나 이 보다 못한 셈이다. 후손들이 받는 연금(52만~188만원)을 빼면 순소득은 올해 1인당 최저생계비(61만 7,281원)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개인 총 재산 역시 국민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5,000만원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21.1%,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0.9% 순이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 작성 결과'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가구당(2.61인 기준) 순자산(3억 3,085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주관적 계층인식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응답자 중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이 73.7%를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 수준으로 연결



독립유공자 3대인 한상조씨가 10일 서울 고척동 자신의 구멍가게 벽에 걸린 조부 한태석 선생의 훈포장과 독립유공자 증서를 바라보고 있다. 독립군 후손에게 '별처럼 남겨진 밥벌이'의 무서움을 평생 겪어 왔던 한씨는 지난 1월 광복 70년 만에 처음으로 유공자 보상을 받았다

됐다. 응답자 중 고졸이 2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초졸(22.8%), 중졸(12.8%), 무학(4.7%)의 순이었다. 교육기회 박탈이 이들을 우리 사회 하층으로 내모는 주된 요인이었던 것이다. 보훈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훈연금 및 대상 확대가 63.1%로 최다였고, 이어 의료서비스(14.3%)와 주거(10.0%), 교육(3.1%) 지원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직접 독립운동을 전개한 생존 독립유공자가 현재 83명이고 평균 나이는 91세로 나타났다. 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방 직후부터 실시돼야 할 보훈 정책이 192년가지 미뤄진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며 "그 때부터 시작된 가난의 고리가 아직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bluebird@hankookilbo.com

홍영표 "사죄·반성이 저의 운명"... 조부 친일행적 공개사죄

70번째 광복절 앞두고..."더 질책 받고, 민족정기사업에 정진할 것"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조부의 친일행적에 대해 사죄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일과 망각을 보았습니다. 친일 후손으로서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의 조부 홍종철은 일제 강점기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에 임명됐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704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이 글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실을 밝히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자손인 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자동차회사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지 않았고 일본의 현대사 왜곡과 제국주의 부활에 동조하지도 않았으며 조부로부터 그 어떤 자산물품이나 부의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또한 "매년 3·1절, 광복 70주년인 이번 8·15광복절이 다가올 때는 솔직히 부끄럽고 어디론가 숨고 싶지만,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더 질책 받고, 그래서 더 민족정기사업에 정진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합니다"라고 했다.

끝으로 "조부의 친일행적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라며 "앞으로도 평생,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힘을 바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주시고"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진심으로 사죄" 독립투사 앞 무릎 꿇은 하토야마 전 총리

일본 전 총리 서대문형무소 찾아 유관순 열사 간헐던 8호방 들러 헌화

(서울=한겨레) 방준호 기자 = 술한 독립운동가들이 스러져간 서울 서대문형무소. 이곳에서 숨진 순국선열 165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 앞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2009~2010년)가 무릎을 꿇었다. 구두를 벗고 추모비 앞 제단에 국화를 올린 그는 무릎을 꿇은 채 10여초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두 차례 절을 올리고서야 무릎을 폈다. 그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잔혹했던 일제 식민지배를 사죄했다. 광복 70돌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2001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 신분으로 이곳을 찾았지만 공식적인 사죄·사과 표현은 없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민족의 혼 그릇'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생각에 잠겨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 총리 자격'으로 과거사를 사과했다. 그는 "일본 전 총리로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이 자리를 찾았다. 고문으로 목숨까지 빼앗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리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14일 발표될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담겨야 한다. 역사적 사실과 반성, 사죄의 내용이 아베 총리의 진심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명록에 '만세운동에 힘을 다한 모든 혼령의 편안함을 바란다. 독립, 평화, 인권, 우애를 위해'라고 적었다. whorun@hani.co.kr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전 총리 자격'으로 과거사를 사과했다. 그는 "일본 전 총리로서,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이 자리를 찾았다. 고문으로 목숨까지 빼앗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리며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했다. 14일 발표될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담겨야 한다. 역사적 사실과 반성, 사죄의 내용이 아베 총리의 진심으로부터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명록에 '만세운동에 힘을 다한 모든 혼령의 편안함을 바란다. 독립, 평화, 인권, 우애를 위해'라고 적었다. whorun@hani.co.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 (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발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방, 탄력, 밝은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이 탄력을 지켜주는 효과로 인기가 높은 제품



최대용 시세이도 보스톤
컨설팅/마케팅
홍은희

야 "국정원 개혁 위해 국회 정보위부터 뜯어 고치겠다"

안철수 "당 차원에서 국정원 강제 조사 방안 강구하겠다"

토론회 참석 의원들 "국회 정보위 개혁" 공감

(서울=뉴스1) 박웅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킴이 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2일 국가정보원이 계속해서 해킹 의혹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당 차원의 강제조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원은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조차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듯이 언젠가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정보기관의 불법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정치적, 법률적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목표는 무능한 국정원을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신경민, 정보위·미방위 소속 문병호, 미방위 소속 송호창 등 의원을 비롯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서 안 위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참석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에 앞서 국정원을 견제·감시하는 정보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 개혁보다 정보위 개혁이 저항이 적을 것 같다"며 피감기관 확대, 간사 브리핑 제도 폐지, 기밀 누설자 처벌 강화, 정보위원 수 확대, 일부 회의 공개, 현행 정보위의 겸임위 성격을 전임위로 전환, 자료제출 및 접근성 확대 등 정보위 개혁 방안을 내놨다.

안 위원장은 "지금 시급한 건 정보위 개혁"이라며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협상해 하나씩 관철해 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높지 않나 싶다. 국정원 개혁 부분도 입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 주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 토론회'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설치하거나 정보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권 신설 ▲국정원의 중앙단위 기관 보안업무 감사 중시 ▲정보감독 지원관실 설치 등을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있었던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이 해외·대북정보 수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내정보 수집과 수사권, 심리전 업무 등은 경찰과 검찰 등 다른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국정원이 정보수집기능, 특히 대북·해외정보수집에 전문성을 갖고, 최대한 (이 업무

를) 할 수 있을 때 국민 불안과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토론장 입장 전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가 (이탈리아 해킹팀의) 400기가바이트(GB)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주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박남춘 "국정원, 경찰보다 50분 먼저 자살현장 도착"

"소방대원, 국정원에 경찰보다 먼저 차량발견 사실 알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자살사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분 먼저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현장 상황을 장악하고 철저히 통제해 변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의 능장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소방대원이 임과장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간은 지난 18일 오전 11시55분이고, 이로부터 8분 뒤인 오후 12시3분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임과장 시신 상태를 확인했고 현장 주변을 살폈다.

박 의원 측은 "중앙소방본부의 구두보고에 따르면 현장 소방대원은 이 국정원 직원에게 경찰보다 먼저인 오전 11시54분 상황을 전파했다"며 차량 발견 전까지 총 3차례 있었던 소방

대원과 국정원 간 무선통화에서 소방대원이 해당 직원에게 차량 수색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했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상환보고를 받은 때보다 8분이 늦은 오후 12시2분 소방대원에게 현장 출동을 요청받고, 오후 12시50분에야 용인경찰서 강력팀과 이동과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출동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소방대원들이 임과장 회사 동료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과 화산리 정류장에서 10여분간 위치 추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는 지금까지 2~3분간 직장동료라고 소개한 신원미상의 남자가 회의장소로 다가와 수색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질문해 모른다고 답변했다"는 소방당국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수원지검 임모 검사는 당일 오후 6시46분 '사망경위를 명백히 수사해 재지휘 받을 것'을 지시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1시간40여분 뒤인 오후 8시30분에 유족에게 마티즈 차량을 인계해 중요한 유품인 차량을 폐차하도록 방조했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smith@news1.kr

'임과장 발견' 유족보다 국정원이 먼저 알았다

(서울=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 국정원 해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숨진 마티즈 차량에서 발견된 사실이 유족보다 국정원 직원에게 먼저 통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소방관이 실종신고를 한 임씨의 부인 등 유가족보다 '단순한' 직장 동료에게 실종자의 소재에 대해 먼저 알려 준 것이다.

이 때문에 임과장에 대한 수색작업에서 국정원이 깊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가 임씨 수색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블랙박스와 용인 소방서와 현장 구급차 간의 무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장 소방관은 마티즈 차량 발견 사실을 임씨 부인보다 국정원 직원에게 35분 먼저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찍힌 구급차의 블랙박스를 보면 국정원 직원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전 11시55분이다. (블랙박스 시간은 실시간보다 3, 4분가량 빠르다)

당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숲속의 좁은 오르막길을 오르던 구급차가 멈추고 몇 명의 구급대원이 서둘러 내리더니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잠시 후에는 마티즈 차량을

목격했다는 주민과 함께 다른 구급대원들이 뛰어서 올라 가기도 했다. 임씨가 마지막으로 타고 있었던 차량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이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내려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 현장 근처에서 '직장 동료'라고 밝힌 국정원 직원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다.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소방대원이 "(숨진 임과장의)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시간과 일치하는 장면이다. 전화를 받은 문제의 국정원 직원은 8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현장에 있는 소방대원은 "수색을 하다보면 동료직원이나 가족과 함께 요구조자를 찾을 일이 생긴다"며 "당시 임씨의 동료 직원이 국정원 직원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렇게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동료 직원에게 숨진 임씨를 발견한 사실을 알린 반면, 제일 먼저 실종신고를 한 임씨 부인은 이 사실을 한참 뒤에 알게 된다.

12시 25분 용인소방서와 현장 구급차 간의 무선 대화 내용을 보면, 구급차가 "위치추적 신고자(임씨 부인)에게 통보했는지"라고 묻자, 소방서는 "신고자에게 통보한 사항 없음. 이동급차, 이동급차 측에서

통보하기 바람"이라고 응답한다.

아직 임씨 부인에게 마티즈 차량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구급차에서 알려주라는 것이다.


임씨 부인이 차량 발견을 통보 받은 것은 이보다 5분이 지난 12시30분이다. 연락을 받은 부인은 1시10분쯤 수색을 마치고 돌아가는 소방대원들과 마주치기도 했다.

마티즈 차량이 있는 현장에는 1시15분쯤 도착했다. 국정원 직원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남편의 주검을 찾은 것이다.

임씨 발견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유족보다 국정원 직원이 먼저 이를 알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점은 상식밖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다"는 소방당국의 해명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소방당국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신속하게 수색 결과를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가장 애타하게 찾고 있을 유가족에게 시신 발견 후 35분이 지나야 알렸던 소방본부와 직장동료라 밝힌 국정원 직원에게는 즉시 통보해줬다"며 "수사가 종결된 시점이 커지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소방본부는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steel@pbs.co.kr




서울설렁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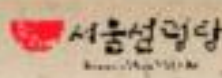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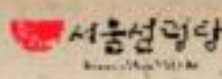




가까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양, 특출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8 Cambridge St., Boston
#17.575.8888
SeoulFoodBar.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퍼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분/여자컷 30분/짜마 70분 부터
다지말 130분 부터/개머핀 헤어 220분 부터 시작합니다.

광학 연구원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은 오븐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15~'16학년도 가을학기 등록부 *

www.ksneusa.org (1975~2016 개교 41주년)

◆ 가을학기 일정 : 2015년 9월 19일~2016년 1월 30일 (설날잔치 및 종강식)
 * 1차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8월 28일(금) 오전 10시 (학교)
 * 2차 신입생 소집: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9월 12일(토) 오후 1시 (학교)
 ◆ 과정 안내: 기초~고급과정(22반) 이종언어 과정(7) 성인반(3) 특별교육(16)
 - 병아리(유아), 기초1 (해님 & 달님반)과 이종언어는 선착순으로 등록
 ◆ 학교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 등록기간: 재학생은 7월 31일까지 * 신입생은 8월 31일까지 등록 마감
 ◆ 오전 및 오후 프로그램 수업 과목 안내:
 (1) 오전반: 9:30am-12:40pm 한국어, 한국역사, 연극, 음악교육(1-3반),
 작문교육(1-4반), 서예, 한국무용, 민요,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교육
 (2) 오후반: 12:45pm-1:45pm : 미술(1-2반), 발레반, 태권도반, 사물놀이팀
 편성팀, 붓글씨반, *골프교실(새벽 기초반이며 인원은 6명 이내 제한)
 ◆ 수업료(오전 & 오후 프로그램) ◆ 마감일 이후 등록시: Late Fee \$20
 (1) 오전: \$330/1명 ~\$590/2 ~\$740/3 (2) 오후반: \$120/1 (3) 병아리반: \$150
 (2) 자녀가 이종언어반에 등록한 경우 → 부모가 성인반 등록 시 50% 할인
 (3) 자녀 2인 이상 등록 시에는 3회까지 등록금을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금 수표는 Korean School of New England로 써 주십시오.
 ▶ 등록금 보내실 주소: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등록부 (Registration Form) ▶

(2015 봄학기 재학생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가 아니면 *표시된 부분만 기재)

*한글이름:(1) _____ (2) _____ (3) _____
 영문이름: _____
 생년월일(년월일): _____ 성별: 남(Male) _____ 여 (Female) _____
 출생지(Birth Place): _____ *학년(2015년 봄): _____ 반
 부모/보호자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집주소: _____
 Email: _____
 * Cell: _____ 집전화: _____
 *비상연락(성명): _____ 전화: _____

◀ 신입생만 기록(New Students Only): 한글실력(Korean Level): 가능한 자세히 ▶

★ 말하기 (Speaking): _____
 ★ 듣기 (Listening): _____
 ★ 읽기 (Reading): _____
 ★ 쓰기 (Writing): _____

오전반 수업료 \$ _____ \$330/1, \$590/2, \$740/3명 (병아리반: \$150)
 오후반 수업료 \$ _____ (1st Choice: _____ 반)
 (2nd Choice: _____ 반)
 기부금: \$ _____ (Tax Deductible)
 총 액: \$ _____ (마감일 이후 Late Fee \$20)

♡ 학부모님 및 후원자 여러분의 기부금(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연방 및 주정부에 비영리단체(Non-Profit Org.)로 등록되어
 있어 기부금의 세금 공제 혜택(Tax Deduction Benef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편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반 편성: 8월 28일(금) 오전 10시 & 9월 12일(토) 오후 1시 학교에서 ★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s of the Nazarene Church
 Weekend Sunday 10am (English) 11:30am (Korean) 4:30pm (Korean)
 Weekday Tuesday 10:30am (Korean), Thursday 7:30pm (Korean)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 임직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미사안내
 No English Mass
 Sunday 10 am
 2015년 6월 21일 ~ 2015년 9월 7일까지
 2015년 9월 20일 - 야외미사
 New Mass
 Sunday 8:30 am
 6월 첫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요한 3:15)
 담임목사: 우시창
 ☎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가나안 부동산 **손득한**
 Broker/Master of RE www.canaa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 son2323@gmail.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Church
 401 King St. Boston, MA 02128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Ft. Det.
 New York Univ. MA, MA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3시
평일인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01 King St. Boston, MA 02128 Tel: (617) 691-0275, (617) 691-2404
 www.loveth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89.5809

보스턴 남부지역의 한인교회
보스턴새힘교회
 Boston New Hope Church

76 Pierce St. Stoughton MA 02072

주일예배 오후 1시 617 622 5225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모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같은, 같은, 부끄러워 할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구별학교, 청소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혼교회 주일오후 12:30
 속죄교회 수-주일 속죄법
 영혼교회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령교회 주일 오후 12:30, 수 오후 6:30, 목 오후 8:30

비전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887
 www.growwithus.org

**"보스턴에는
 보스턴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턴코리아는
 보스턴 언론으로서
 외딴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바른 길을
 걸도록 여러분에서 자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턴 한인
 역사를 긍정하게 기록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aptist@bostonkorea.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터 & 푸도상 튜터링 Nabis Studio

NFL 선수들은 디플릿게이트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쿼터백과 NFL 사이에 디플릿게이트에 대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스포츠 전문채널 ESPN에서 흥미로운 설문 조사를 벌였다. 현역 NFL 선수들 100명 이상을 상대로 디플릿게이트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하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ESPN의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의 NFL 선수들은 패트리어츠가 풋볼의 바람이 빠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사실에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 패트리어츠가 풋볼의 바람을 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풋볼을 조작하는 행위는 리그 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SPN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는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NFL 선수들이 답한 질문 중에는 디플릿게이트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도 있고, NFL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부정 행위에 대한 질문도 있다.

다음은 패트리어츠와 탐 브래디에

대한 주요 설문 조사 내용이다.

Q: 당신은 패트리어츠가 풋볼의 바람을 뺐다고 생각하는가?

A: 그렇다(72%), 아니다(28%)

Q: 나는 패트리어츠가 풋볼의 바람을 뺐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A: 그렇다(16%), 아니다(84%)

Q: 나는 패트리어츠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A: 그렇다(42%), 아니다(58%)

Q: 바람이 빠진 풋볼은 경기의 결과의 영향을 미치는가?

A: 그렇다(48%), 아니다(52%)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대답으로 78%의 선수들이 브래디에게 내려진 4경기 출장 금지 처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다. 선수들은 평균 1.5경기 출장 정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로저 구넬 NFL 총재가 선수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선수들(68%)이 경기 시작에 앞서 상대팀에서 풋볼에 어떤 조



지난 12일 뉴욕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디플릿게이트 관련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탐 브래디가 들어서고 있다

작을 가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수들의 절반 정도만이 풋볼을 조작했을 때 경기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 응한 선수들에게 국한된 일이지만, 30%의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리그에서 허용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답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브래디의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지 모르지만, 브래디와 패트리어츠에 대한 여론 재판은 이미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 선수들이 디플릿게이트와 패트리어츠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은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패트리어츠는 과거 스파이게이트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디플

릿게이트로 한 번 더 부정행위를 일삼는 팀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선수들은 디플릿게이트에 대해서도(84%), 스파이게이트에 대해서도(80%)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NFL 선수들은 지난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jsi@bostonkorea.com

[PGA] PO 나서려면 우승 뿐...우즈, 챔피언십서 '반전' 가능할까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 이 대회는 올 시즌 타이거 우즈(미국)의 마지막 대회가 될까.

PGA 챔피언십(총상금 1000만달러)이 13일부터 나흘간 미국 위스콘신주 윌러의 휘슬링 스트레이츠 골프장(파72·7501야드)에서 열린다.

우즈는 올 시즌 부상과 부진, 결별과 외도 스캔들 등 경기장 안팎에서 심한 마음고생을 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10차례 출전한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은 4월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기록한 공동 17위였다.

이번 대회는 우즈의 시즌 마지막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PGA투어는 PGA 챔피언십이 끝난 뒤 그 다음주 윈덤 챔피언십을 마지막으로 정규투어 일정을 마감한다. 이후 페덱스컵 랭킹 상위 125위까지 출전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대회가 이어진다.

현재 187위에 머물러 있는 우즈가 125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에서 최소 단독 2위 이상의 성적이 필요하다. '톱랭커'들이 대거 나서는 윈덤 챔피언십에 나갈 수도

있지만, 우즈는 이 대회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즈는 이날 PGA 챔피언십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면 더 많은 대회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대회는 플레이오프 대회에 나서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즈는 이번 시즌에 대해 "좀 더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관성있는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대회에서 처음 우승했던 1999년을 기억한다. 그때의 감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회에서 우즈는 4차례 우승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올 시즌 한 번도 '톱10'에 진입하지 못했던 우즈가 톱랭커들이 총출동하는 대회에서 우승하리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현지에서도 우즈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스카이벳', '벵웨이' 등 대부분의 배팅 전문 사이트들은 배당률에 따른 우즈의 우승 가능성을 대개 20위권 밖으로



타이거 우즈(미국)

예상했다.

다만 부담감을 떨쳐낸다면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골프 채널'의 마크 톨핑은 "현재 매길로이, 스피스, 왓슨 등 우즈를 제외한 스타급 선수들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다"면서 "우즈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에게는 호재"라고 말했다.

올 시즌 대회에서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던 우즈로서는 관

심이 집중되지 않은 이번 대회에서 오히려 '멘탈'을 다잡고 좋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앞선 몇 차례의 대회 전 "우승이 목표"라며 늘상 자신감있는 모습을 보여왔던 우즈 역시 이번 대회만큼은 "성적"을 앞세우지 않았다.

그는 "나는 단지 이번 대회에서 나의 게임을 하고 싶을 뿐이다. 랭킹이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같은 것을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세계

랭킹이 몇 위인지도 알지 못한다"며 무심한 모습을 보였다.

10일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우즈는 278위에 올라있다. 32위로 시작했던 우즈는 올 시즌 극심한 부진과 함께 랭킹도 급락했다.

시즌 마지막 대회일지도 모를 PGA 챔피언십. 부담을 털어낸 우즈는,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starburyny@news1.kr

보스톤코리아 창립 10주년 기념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최고의 한식집을 선정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독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한식 식당

**BEST OF
KOREAN
RESTAURANT
2015**

안녕하세요. 보스톤코리아는 한인 여러분만 보고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만 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주의 한인신문으로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해온 저희가 최고의 한식 전도사 한식 식당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한식 식당은 매사추세츠 주내로 한정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곳에 이렇게 많은 한식당이 한식을 미국에 전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실 것입니다.

한식당 명단 (총 45업소)

- | | |
|-----------------|------------------|
| 가든하우스(로렌스) | 산수갑신(벌링톤) |
| 가주순두부(울스톤) | 서울설렁탕(울스톤) |
| 가주순두부(케임브리지) | 서울 레스토랑(보스톤) |
| 가유가(울스톤) | 수라상주문음식(앤도버) |
| 뉴장수갈비(벌링톤) | 조조순두부(케임브리지) |
| 다모여(보스톤) | 아라수 레스토랑(레언스터) |
| 다빈(렉싱턴) | 야수(브루클라인) |
| 다오리사(브락튼) | 영치우루(벌링톤) |
| 리틀부산(메이나드) | 오빠스시(울스톤) |
| 메주(서머빌) | 우리(알링톤) |
| 영봉일변재(울스톤) | 우전(벌링톤) |
| 미나트 스시 | 우정식당(에이어) |
| 미소노(브루클라인) | 웨스트보로한국식당 |
| 미스터 스시(알링톤) | 이가그릴(로렌스) |
| 미스터 스시(브루클라인) | 제이피사푸드카페(보스톤) |
| 본촌(울스톤) | 청기와 레스토랑(매드포드) |
| 본촌(케임브리지) | 코리아나 레스토랑(케임브리지) |
| 북경반점(울스톤) | 코리아그릴(퀸지) |
| 북경반점(서버빌) | 하나스시(케임브리지) |
| 비림(울스톤) | 한국가든(울스톤) |
| 사무라이(보스톤) | 한마루(울스톤) |
| 사브로(뉴튼) | 젠320(브루클라인) |
| 사브로스시바비큐(웨스트보로) | |

혹 빠진 곳이 있으시면 저희 보스톤코리아(017-254-4354)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식당 명단 중 2개를 골라 공모 용지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응모는 9월 18일(18일자 무관소인)까지 마감합니다.
응모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한국왕복 비행기표를 드립니다.
또한 2등 당첨자 1명에게는 애플워치를 드리며
3등 당첨자에게는 최고로 선정된 음식점 상품권 1매(25불)를
10명에게 드립니다.
독자들의 투표로 선정된 한식당에는 보스톤코리아 독자 선정
최고의 한식당 증명서를 증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는 1인 1투표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투표는 불가합니다.

베스트 한식당 선정 및 경품 신청서

선정 한식당 1:
선정 한식당 2:

응모자 정보 기입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한식당 및 경품 골라 신청 용지에 적어서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991 Harvard Ave, Suite 112, Boston, MA 02114
당첨 확률은 보기에, 신청은 9월 18일(18일자 무관소인)까지 마감합니다.

후원: KFood with
POPP
SAINT AUGUSTIN

KFood with
수복



보스톤 한인회



노드아일랜드 한인회

뉴햄프셔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2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000
Sharon, MA
3 Beds, 2 Baths, 1440 sf.
Two-level ranch home
Fully fenced in yard, 좋은 학군
이현주 401-935-3397



\$579,000
Sharon, MA
4 Beds, 2.5Baths, 2303 sf.
New septic system
편리한 교통
이현주 401-935-3397



\$364,900
Braintree, MA
3 Beds, 1.5Baths, 1266sf.
Great Location!!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이현주 401-935-3397



\$728,000
Lexington, MA
3 Beds, 1.5 Baths, 2100 sf.
많이 업그레이드 된 집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리 978-806-6023

단독주택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325,000
Framingham, MA
3 Beds, 1.5 Baths, 1452 sf.
Excellent location
Gina Choi 978-866-3248



\$1,399,000
Lexington, MA
5 beds, 3.5baths, 4050 sf.
Maintained 2012
Top notch construction
OT Kim 617-620-8242



\$519,000
Tewksbury, MA
4 beds, 2.5 baths, 2958 sf.
Cul-de-sac 에 위치
편리한 교통
Kwang O. Kim 617-792-8615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569,000
Wilmington, MA
3 Beds, 2.5 Bath, 3100 sf.
편리한 교통, 관리가 잘된 집
Anna Jung 617-780-1675



\$949,900
Arlington, MA
5 Beds, 3.5 Bath, 3498 sf.
Quiet Cul-De-Sac
Anna Jung 617-780-1675



\$580,000
Boston, MA
1 Bed, 1 Bath, 709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

Condo Rental
\$2,950
Cambridge, MA
2 Beds, 1 bath, 1142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700
Lexington, MA
2 Beds, 2 baths, 1318sf.,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샌드위치 스토어
Jay Lee 781-654-5281

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Beds, 2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1,450
Acton, MA
2 Beds, 2.5baths,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8년 144 / 2009년 144만 9천 / 2010년 144만 9천 / 2011년 144만 9천 / 2012년 144만 9천 / 2013년 144만 9천 / 2014년 144만 9천 / 2015년 144만 9천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Sara You
617-899-3566

Restaurant  \$479,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75,000 Boston, MA 5년된 큰 샌드위치 스토어 Great potential to grow Jay Lee 781-654-5281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499,9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6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Dry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290,000 Somerville, MA Famous Restaurant,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440,000 Boston, MA Well-Established, As-is SJ Park 617-304-7001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Restaurant \$490,000 Boston, MA 발전가능성이 많은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8,000 Cambridge, MA 하버드 스퀘어에 위치 Anna Jung 617-780-1675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가나안 부동산
손동한
 Director of RE
 www.cdnre.com
**부동산 투자 / 아파트 렌트
 주택 매매 / 비즈니스 매매**
 161 Harvard Ave, Suite 2, Allston MA 02134
 617.290.0623 son2323@gmail.com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 32 August 14 2015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요람에서 무덤까지’ 뉴욕라이프 보험
윤광현 재정설계사
 업소탐방 299
 윤광현 재정설계사
 201 Jones Rd. 5th Floor, Waltham MA
 (978) 390-4738, FAX: (781) 899-5829
 Kyoons53@yahoo.com

안티바이러스 (AV) 프로그램 설치 권장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하십시오

Welcome, **7D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하는 한국 방송 언하는 시기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급업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평생 연액 보스톤코리아 TV 시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2년 약정시)
 시너 가입자의 경우 월\$29.99

NEW YORK LIFE
The Company You Keep®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함요한 기자 = 인간은 살아가는데 있어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매일 살아간다. 예기치 않은 죽음, 사고, 병 등은 아무도 바라지 않지만 일어날 경우에 본인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현실이다. 윤광현 씨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대비해 적절한 재정계획을 짜고 대비를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고 전했다.

보스톤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역의 유일한 한인 재정설계사 (Financial Planner) 윤광현 씨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다” 는 윤광현 재정설계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재정계획에 있어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법, 공식, 계약 등에 대해 복잡해한다. 이러한 재정계획을 준비하는 한인들을 위해 윤광현 재정설계사는 재정계획을 알기 쉽게 영어와 한국어로 상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윤광현 재정설계사는 보스톤 한인들을 위해 중요한 생명보험(Life Insurance), 은퇴연금(Annuity), LTC(Long Term Care)로 대별되는 재정설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 주대상: 0-80세가 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재정계획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키는 인생의 에어백이다. 은퇴나 충분한 돈을 확보하기도 전에 죽게 되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이것은 저축과 투자를 접합시켜 노후대책의 한 방법도 된다.

▶은퇴연금(Annuity): 35-85세 대상

은퇴준비는 평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은퇴연금은 은퇴 후 자금이 바다 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계획이다. 평균수명이 있다지만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어 그 시기에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재정부담을 덜면서 마음의 평화가 생기면 더 건강히 오래 살게 된다.

▶LTC(Long Term Care, What if get sick? 40-50세이후)

몸이 아파서 힘든데 거기에 돈까지 걱정해야 된다면 더 힘들다.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의 70%가 Long Term Care가 필요하다고 한다. LTC는 메디케어를 통해 최대 100일까지만 요양병원 혜택이 가능하다. 이어 메디케이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

준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제한적이고 매우 까다로워 40-50대에 미리 대비해서 가입하면 낮은 이자율로 고정된다.

윤광현 재정설계사는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 모두가 재정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언어상 문제로 마땅한 전문가가 없어서 객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 전했다. 이어 윤광현 재정설계사는 “개별상담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고객과의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하니 안심하셔도 된다” 고 전했다. 윤광현 재정설계사의 전화번호는 978-390-4738 이며 이메일은 Kyoons53@yahoo.com 이다.

jham@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ll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예배 11PM, 달남목사 유범일
 bgabc.org
 40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6.6434
 global all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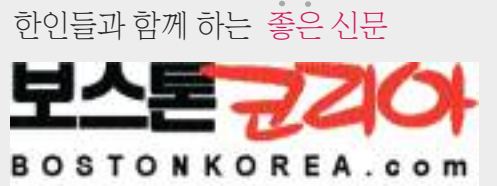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장선교(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A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공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리생명의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774-70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살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앤 앨버 교회	978-274-23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김민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문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알구정동열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코이스덴탈그룹	781-391-5606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아기보면서 가사일 도와주실 분 구함. 웨스트포드 지역, 풀타임/파트타임. T. 617-755-1535

데드햄에 있는 네일샵에서 Type-1 or Type-6 라이선스 소지한 네일테크니션 구함. (Full Time) T. 312-235-9660

CSI 찰스타운 캠퍼스에서 국제 입학 담당자를 구합니다. <http://csinow.theresumator.com/apply/>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Plymouth에 위치한 네일샵용 매매

3,000 SF.
8 페디큐어 체어
8 테이블
2 왁스 톨
Asking Price: 380K

대 자매인 새로운 약에서 판매를 판매부서로
617 223 7836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하우스 매매

웨스트우드(Westwood) 4베드룸, 3 배스, 1층 랜치. 조용하고 아주 좋은 위치 1.3에이커의 대지. 32Meadowbrook.com
가격 \$749,000
리맥스 홈팀 617-933-9778

노쇼어 세탁소 매매, 140K+90K Non Perc+셔츠, 판매조건 협의 가능 T. 978-979-4541

올스톤에 위치한 오피스 스페이스 서블릿 입주자 구합니다. T. 617-418-0784 (수잔)

(급매) 벌링턴/사우스쇼어물에 있는 헤어약세사라가게 팝니다. 좋은가격 T. 312-350-0159

N [그로서리 매 매]
그로서리 매매코저 합니다 Hot Food, 델리, 샌드위치 포함 월매상 \$60,000 이상 월 - 금 까지 OPEN 단독건물입니다 리타이어로 급매코저 합니다. T. 501-753-1691

N [매 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물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 [매 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저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 [매 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썬 천일염, 인디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 [급 매]
콜롬버스 조지아 지역 옷수선, 컴퓨터자수 드라이크리러 픽업 10만불 - 5만 9천불로 조정 T. 706-330-1978

N [매 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 [매 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시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 [매 매]
치킨링,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캐롤라이나 웨잇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 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 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l.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암살', 1천만 돌파 목전서 표절 논란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암살' 표절 논란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소설가 최종림은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안수현 대표, 배급을 맡은 쇼박스 유정훈 대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최종림은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점이 저서와 같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암살' 제작사 측은 최

종림이 주장하는 여성 저격수 유사성에 대해 "소설의 주인공 공황보린은 극 초반 김구 선생의 행정비서 출신으로 광복군 87명중 한 명으로 조선으로 파견되어 한차례의 거사(경북지사의 암살)에 투입되지만 주된 임무는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역할이었으며 이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의 역할과는 먼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남자 주인공들과 삼각관계의 사랑에 빠져 갈등하는 캐릭터로서 묘사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암살'의 안옥윤은 만주 지청천장군의 한국독립군 제3지대 포수계 저격수 출신으

로 비밀 암살작전에 투입돼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신념을 지키는 최고의 저격수로서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보여준다"고 비교했다. 관객 돌파 900만을 넘어 1000만 돌파를 앞둔 '암살'이 표절 논란의 오명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암살 표절 논란에 누리꾼들은 "암살 표절 논란, 1000만 돌파 얼마 안 남았는데", "암살 표절 논란, 안타깝다", "암살 표절 논란, 무슨 일이지", "암살 표절 논란, 판결을 가려야 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임박

(서울=뉴스1스포츠) 신호재 기자 = 강원도는 MBC무한도전 가요제를 평창알펜시아 스키점프경기장에서 13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무한도전 가요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특히 무한도전 10주년을 맞아 평창동계올림픽 선정당시의 감동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이름으로 가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람객 5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돼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장에는 강원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올림픽 붐 조성과 강원도 관광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입장객들에게는 동계올림픽 배지, 리플렛, 부채, 물티슈, 썸캡, 엠블럼 스티커 등 홍보물을 배부하고 스키점프선수 모형 포토월과 무한도전 로고 활용 등신대를 설치해 기념사



진 촬영 포토존 뿐만 아니라 무료사진 인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스키점프 체험 게임기도 설치해 동계종목을 간접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동계올림픽과 문화도민운동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레저용품, 생수, 아이스크림을 증정하는 등 대기 중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게릴라 홍보도 한다. 강원도는 향후 알펜시아를 무한도전 가요제 촬영장소라는 점을 부각시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하고 강원도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shj971120@news1.kr



'슈스케7', 8월 20일 첫방송 '木예능 출사표'

(서울=뉴스1스포츠) 명희숙 기자 = Mnet '슈퍼스타 K7'가 오는 8월20일로 첫 방송일을 확정하고, 목요일 밤 11시에 출사표를 던진다. '슈퍼스타K7' 제작진은 윤종신, 백지영, 김범수, 성시경 심사위원의 조화가 돋보이는 포스터를 통해 오는 8월20일 밤 11시 첫 방송 일정을 알렸다. 심사위원 오디션 현장에서 백지영, 김범수, 성시경 심사위원이 나누는 대화를 포착한 티

저영상도 함께 공개하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편안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미소로 오디션을 준비하는 메인 심사위원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시즌의 가능성과 에너지가 느껴진다. '슈퍼스타K7'이 목요일 밤 방송을 결정함에 따라 Mnet은 보다 강력한 목요일 예능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목요일의 전통적 강자 '엠카운트다운', 최근 목요일에 편성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언프리티 랩스타', '너

의 목소리가 보여'에 이어 '슈퍼스타K7'도 목요일에 편성되면서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 예능이 목요일을 채우게 됐다. '슈퍼스타K7' 성시경 심사위원은 티저 영상을 통해 "목요일이 좋다. 목요일은 일주일의 즐거운 후반으로 넘어가는 딱 중간이라 시청자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reddgreen35@news1.kr

리암 니슨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역 확정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리암 니슨이 영화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장군 역 출연을 결정했다. 리암 니슨은 이재한 감독이 연출하고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맥아더 장군으로 출연한다.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이재한 감독이 연출하는 '인천상륙작전'에 리암 니슨의 출연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국제연합(UN)군이 맥아더의 지휘 아래 인천에 상륙해 6.25 전쟁의 전세를 뒤바꾼 군사 작전인

인천상륙작전을 그린 영화다.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일명 X-RAY 첩보 작전과 팔미도 작전을 아우르는 전쟁 실화 블록버스터다. 당초 '인천상륙작전' 제작사 측은 리암 니슨의 상황을 고려, 리암 니슨의 모든 촬영분을 미국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리암 니슨 본인이 나서서 한국 촬영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오는 11월 초 한국에 촬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luem_chang@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8월 3일 ~ 8월 9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4.9%
2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22.8%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21.5%
4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7.0%
4	KBS1	KBS9시뉴스	16.8%
6	MBC	무한도전	14.5%
7	KBS2	해피선데이	14.0%
8	KBS1	전국노래자랑	13.1%
9	KBS1	가요무대	12.9%
9	SBS	드라마스페셜(옹팔이)	12.9%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일일연속극(위대한 조강지처)
2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3	MBC	주말드라마(여자를올려)
4	SBS	일일드라마(돌아온 황금복)
5	KBS1	일일연속극(가족을지켜라)
6	MBC	아침드라마(이브의 사랑)
7	MBC	일일특별기획(딱너같은딸)
8	SBS	드라마스페셜(옹팔이)
9	MBC	창사특별기획(화정)
10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I Feel You	원더걸스
02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BIGBANG
03	위잉위잉	혁오 (hyukoh)
04	떨어 (GD & T.O.P)	BIGBANG
05	와리가리	혁오 (hyukoh)
06	거북선 (Feat. 팔로알토)	자메즈, Andup
07	양화대교	Zion.T
08	SHAKE IT	씨스타
09	Remember	Apink
10	뱅뱅뱅 (BANG BANG BANG)	BIGBANG

숫자 퍼즐 (Sudoku)

		2		5		6	4	
								8
3		1						
7			1				3	5
1	9		3		8		6	4
2	3				6			7
						4		9
9								
	4	8		3		1		

8월 16일 - 8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현실에 만족하고</p> <p>●운수:현실에 만족하고 마음의 동요만 없다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가급적이면 새로운 투자나 사업체 확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 모든 일을 순서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애정:힘든 시기일수록 부부나 연인사이에 상대를 이해심으로 받아주어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p>	<p>소띠 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해야</p> <p>●운수:외면보다는 내면에 충실하세요. 앞서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지출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유흥비나 교제비가 늘어나니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애정: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은 이성과의 만남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참고 지나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6, 21일 길일. 20, 22일 주의.</p>	<p>범띠 좋은 그림을 그릴</p> <p>●운수:사업상으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던 일을 바꾸거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전업을 계획하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금전:모든 처지와 형편이 좋아지니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외부로 활동을 해야 발전도 있고 금전으로 나아집니다. ●애정:시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해소됩니다. 싱글은 핑크빛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9, 22일 길일. 21일 주의.</p>
<p>토끼띠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는</p> <p>●운수: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생각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한 판단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세요. ●금전:소유의 만족보다 베푸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인간관계의 화합에 신경 쓰도록 하세요. ●애정:여행지에서의 멋진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약혼이나 결혼하는 시기로 최적기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8, 20일 길일. 16, 22일 주의.</p>	<p>용띠 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p> <p>●운수:해외나 장거리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나 변동, 확장에도 좋은 때가 아닙니다. ●금전:힘들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지금 결정하면 훗날 찾아오는 복을 차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외로움도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외로움이 자신에게 전달되어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6, 18일 길일. 17, 22일 주의.</p>	<p>뱀띠 기대 이상의 결과를</p> <p>●운수:조금씩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안정되어 가면서 투자에 있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애정:눈에 보이게 나아집니다. 일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긴 안목에서 상대와 인간적으로 정을 나누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8일 주의.</p>
<p>말띠 차분한 마음으로</p> <p>●운수:이일을 하면서 저 생각 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산만하고 초조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금전:계산상의 착오로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적당한 긴장한 상태에서 일해야 합니다. ●애정:아무리 부정해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8, 21일 길일. 16, 19일 주의.</p>	<p>양띠 서두르지 말고</p> <p>●운수:계획했던 일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처하도록 합니다.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금전:매매하는 일로 근심이 따릅니다.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 경계하여 피해를 줄이는 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세요. ●애정:유혹에 빠져들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성 관계에 있어서 양다리 걸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1일 길일. 16, 17일 주의.</p>	<p>원숭이띠 뜻밖의 행운이</p> <p>●운수:주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니 신용회복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위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대길합니다. ●금전:성실하게 일하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애정:외로웠던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을 만나 기쁩니다. 가정적으로도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20일 길일. 18, 19일 주의.</p>
<p>닭띠 가슴을 활짝 열고</p> <p>●운수:활동의 영역을 넓혀 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금전:가슴을 활짝 열고 먼저 베풀도록 하세요. 욕심을 크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어도 결혼까지 결정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7, 21일 길일. 19, 22일 주의.</p>	<p>개띠 적당한 선에서</p> <p>●운수: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옳은 것이 통하지 않고 도중에 막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금전:수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매상을 올리려고 무리하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정:서로가 피곤한 때입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말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p>	<p>돼지띠 애정이 더 깊어지는</p> <p>●운수:오랫동안 뜻대로 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어 나아갑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니 좋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금전:금전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뜻밖의 소득으로 웃음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정:서로간의 애정이 더 깊어지는 때입니다. 권태기였던 부부나 연인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p>

이태임 '유일랍미'로 복귀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이태임이 드라마 '유일랍미'로 안방극장으로 복귀한다.

드라마 제작사 지담 측은 11일 오전 "이태임이 16부작 드라마 '유일랍미'(극본 윤소영 / 연출 이정표)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밝혔다.

이태임은 극 중 드라마 작가 지망생이지만 실제로는 '3포 세대'인 백조 박지호 역을 맡는다. 박지호는 작가를 꿈꾸지만 현실은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살아가는 키보드 크리에이터다. 짜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SNS에서는 세상 모든 여성들을 홀리는 카사노바로 행동하던 중 한 남자를 제자로 맡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제작사 지담 측은 "이태임과 이날 오전 출연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이태임은 '유일랍미'에서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를 선보일 것이다. 이태임이



이 작품을 통해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웹메이드 작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태임의 복귀에 누리꾼들은 "이

태임, 힘든 일 잘 털어냈구나", "이태임, 환영해요", "이태임, 좋은 연기 보여줘요" 등 반응을 보였다.

aluem_chang@news1.kr



현아, 티셔츠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현아가 컴백일을 확정하고 재킷 사진을 선보였다.

현아는 미니 4집 '에이플러스(A+)' 음원 발매일을 오는 21일 낮 12시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전 공식 SNS를 통해 새 음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미국 L.A에서 촬영한 이번 재킷 이미지는 각기 다른 스타일링과 몽환적인 분위기 연출로 강렬한 변신에 나선 현아의 존재감을 담았다. 현아는 해

변가를 등진 채 상의를 탈의한 듯 아찔한 뒤태를 드러내는가 하면 대담한 노출의 퍼 스타일링과 티셔츠만으로 섹시미를 발산했다.

이에 앞서 현아는 새 음반 콘셉트를 관통한 19금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 이를 만에 유튜브 200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섰다. 차후 공개될 컨셉트는 물론 아직 공개되지 않은 타이틀곡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며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ppbn@news1.kr

'주먹쥐고 소림사' 여자편, 운동 에이스 총출동

(서울=뉴스1) 권수빈 기자 = '주먹쥐고 소림사'가 출연자를 모두 확정했다.

SBS '주먹쥐고 소림사' 측은 12일 애프터스쿨 유이, 카라 구하라, 최정윤, 하재숙, 임수향, 미쓰에이 페이, 오정연 등 여성 편 출연자들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

기존 멤버 김병만, 육중완은 길라잡이 역할로 3번째 소림사 행을 결정했다. 수영선수 출신 유이를 시작으로 '구사인볼트'라고 불리는 구하라, 데뷔 20년차에도 꾸준히 사랑받은 최정윤, '아이리스2'로 검증된 차세대 액션 여배우 임수향, 프로레슬링과 스킨스쿠버까지 못하는 게 없는 하재숙,

무용으로 다져진 몸매와 뛰어난 춤실력의 페이, 서울대학교 체육학과에 빛나는 오정연까지 연예계 운동 에이스들이 이번 편에 모두 모였다.

'주먹쥐고 소림사' 여자팀은 오는 17일 출국해 중국 천주 남소림사에서 정신수양과 무술 훈련을 받는다. ppbn@news1.kr



천지보상

운명사주궁합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0498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14 OTK Do-Com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특급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법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세스캡' 김희애, 축 좋은 경찰 아줌마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미세스캡' 김희애가 축 좋은 경찰 아줌마가 돼 흥먼지가 가득한 수사 현장 속에 온몸을 내던졌다.

김희애는 오는 8월 3일 밤 10시 첫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미세스캡'에서 정의롭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강력반 팀장 최영진으로 분해 수사 현장의 지휘자로서 슬한 사건과 맞서 싸운다.

'미세스캡'에서 김희애는 기품 있는 드레스 대신 편안한 청바지를, 높은 구두 대신 마음껏 내달릴 수 있는 운동화를 택했다. 그는 흉악범들과의 기싸움에도 밀리지 않는 두둑한 배포, 사건 현장을 압도하는 투지와 집념으로 범인 검거가 제일 쉬운 강력반 형사로 강렬한 변신을 선보인다.

아울러 '미세스캡'에서 김희애

는 범인과의 추격전 등에서 벌어지는 리얼한 생활 액션을 통해 몸 쓰는 연기에 도전한다.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서울지청 에이스 김희애는 허정도(조재덕 역), 이기광(이세원 역), 양현민(진수 역) 등 팀원들과 함께 현장 곳곳을 누비며 생동감 넘치는 스토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미세스캡' 제작진은 "곳은 여름 날씨에 지칠 법도 하지만 김희애는 동료 배우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살뜰히 챙기며 현장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다. 열정적인 베테랑 형사와 딸을 사랑하는 초보 엄마의 모습을 넘나들며 의심할 여지없는 명품 연기력을 선보일 김희애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8월 1째주 시청률 BEST 10

- | | | |
|----|-----|------------|
| 1 | MBC | 위대한 조강지처 |
| 2 | KBS | 그래도 푸르른 날에 |
| 3 | MBC | 여자를 울려 |
| 4 | SBS | 돌아온 황금복 |
| 5 | KBS | 가족을 지켜라 |
| 6 | MBC | 이브의 사랑 |
| 7 | MBC | 딱 너 같은 딸 |
| 8 | SBS | 옹팔이 |
| 9 | MBC | 화정 |
| 10 | MBC | 여왕의 꽃 |

티보플레이 8월 1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미세스캡 |
| 2 | SBS | 옹팔이 |

티보플레이 8월 1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연평해전 | 김무열/진구 |
|---|------|--------|

'연평해전' 월드컵보다 뜨거웠던 2002년 6월 그날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영화 '연평해전'(감독 김학순) 메인포스터에는 지난 2002년 6월 한 일 월드컵 당시 뜨거웠던 시청 앞 응원 장면과 동시에 나라를 지켜낸 윤영하(김무열 분) 대위와 한상국(진구 분) 하사, 박동혁(이현우 분) 상병의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돼 있다.

원칙주의 리더 윤영하 대위의 굳건한 표정은 축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하다. 헌신적인 조타장 한상국의 안타까운 표정과 눈빛이 마음을 울린다. 따뜻한 배려

심을 지닌 의무병 박동혁 상병의 호소력 짙은 눈빛은 그날의 사건에 대한 공금증을 더한다.

이렇게 월드컵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순간에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그날의 해전이 대비되는 메인 포스터는 '2002년 6월,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던 날 더 뜨거웠던 그들의 이야기'라는 카피와 함께 우리가 잊고 있었던 2002년 그들의 이야기를 예고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aluem_chang@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레지덴셜 리스팅

- 1. 브루클라인 엘리트 패밀리:** Rt 9 Brookline, Chestnut Hill Mall 인근에 위치. 총4,271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3 MI
- 2. Colonial Single Family:** Newton Chestnut Hill에 위치. 1994년에 완공.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총면적 5,000sqft 이상,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1.95 MI
- 3. Belmont 엘리트 패밀리 Duplex:** Belmont High School에서 근접한 거리, 편리한 교통. 3,000sqft, 총6Bed, 2Full and 2half baths. Asking \$750,000
- 4. Watertown에 위치한 라운하우스:** 편리한 교통. 2Beds 2Full baths. 1914 sqft, finished basement 면적 포함. Asking \$450,000.
- 5. Lexington Single Family:** 1,500sqft, 4Beds 1Full Bath.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sking \$595,000
- 6. 브루클라인 콘도:** 1베드 1베스. 그라지 파킹 포함. 최상의 위치 및 학군. 주말 오픈하우스. 1731 Beacon St Brookline Unit 113. Asking \$499,900

비즈니스 리스팅

- 1. Brookline 한식/일식:** 총면적 3,300sqft, 많은 유통인구.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350,000
- 2. Cambridge 한식/일식:** 총 면적 1,200sqft, Beer&Wine License 포함. Asking \$200,000
- 3. Peabody 중식:** 단박건물. 50+ Parking. Asking \$250,000. Full Liquor.
- 4. Nashua 인근 일식/한식:** NH 단박건물 주차공간 포함. Asking \$175,000. Full Liquor.
- 5. 드롭오프 스토어:** 1,200sqft, 넓은 주차공간, Lots of vehicular traffic. Asking \$35,000
- 6. 드롭오프 스토어:** 800sqft. Asking \$30,000
- 7. 세탁소+드롭오프 스토어:** 최상의 위치. Asking \$1.85 Million. 세탁소 건물 포함.
- 8. 헤어 액세서리 카프 매케:**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대형물안, 좋은 위치, 안정적인 수입. Asking 55,000 인벤토리 포함.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10회

큰 그림으로 봐야..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우리 집 막내 녀석과 우리 집 나이가 같다. 이 녀석이 6개월 되던 해에 집을 짓고 이사를 왔는데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만 23살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산지 벌써 23년을 맞고 있다. 세 아이의 유년시절이 고스란히 남아 숨결을 이루는 곳이며 우리 가족의 추억이 소중히 담긴 장소이기도 하다. 지금은 세 아이 모두 집을 떠나 있어 텅그러니 우리 부부와 그리고 우리 집 귀염둥이 강아지 '티노' 셋이서 이 집을 드문드문 들락거리는 공간이 되었다. 가끔 조용한 시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세 아이와의 아련한 추억이 머리와 가슴을 스쳐 오간다.

한 열흘 전부터 우리 집 바깥 페인트칠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네 미국인들의 집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자주 페인트칠을 하고 집을 가꾸는 편인데, 우리는 게으른 탓일까. 언제나 미국인들의 집보다 한 발짝씩 늦게 페인트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하튼, 새로운 집 장단이 시작되었으니 뭘지 모를 마음이 수선스럽고 분주하기만 하다. 집의 바깥 페인트와 포치(Porch)를 새로 정리해 하기로 했기에 며칠 동안을 푹푹거리며 못을 박아대는 소리에 정신이 없다. 요즘 찜통처럼 폭폭 찌는

날씨에 밖에서 네 다섯 사람이 일하는데 집 안에서 그 모습을 내다보려니 괜스레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그렇게 일하다 일기가 좋지 않으면 쉬고 다시 또 일을 시작하고 하더니 집의 바깥 페인트칠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포치를 마무리 짓고 있는 모양이다. 동네 어귀에서 멀리 바라다보이는 우리 집을 오랜만에 쳐다보았다. 집 지붕과 잘 어울리는지 싫어 한 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색상은 이 집 안주인인 내가 골랐는데 아이들과 카톡으로 서로 의논을 하니 모두가 좋다고 하기에 결정했던 색상이다. 바탕은 베이지 색상으로 하고 셔틀(Shutter)의 색상은 올리브그린으로 하였다. 사진으로 담아 세 아이에게 보내주니 모두 마음에 든다기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실, 페인트칠이 마무리되기 전에 혼자서 몇 시간은 속이 상했었다. 그것은 다른 안 페인트 색상을 고르려고 흠뻑에 가서 한참을 이리저리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막상 집에 바탕 색상을 칠해 놓았는데 베이지 컬러가 내가 생각했던 색상보다 노랑빛이 더 도는 것이다.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바라보고 속이 상하기 시작했다. 어느 한 부분 같아서 바뀌보기라도 하는데 이것은 집 전체를 다 칠해놓은 것을 바꿀 수도 없고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색상을 보고 또 몇 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더욱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누구를 탓할까. 그 색상을 고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말이다. 집 밖의 페인트를 쳐다보던 내 표정이 썩 좋지 않아 보였던지 일을 하던 사람들과 그들을 인솔하는 책임자가 묻는다. 색상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생각보다 옐로빛이 더 돌아 마음이 좀 그렇다고 말을 했다. 그렇지만, 내가 고른 색상이니 어찌하겠느냐고 답을 해주면서 웃음으로 언짢은 마음을 주섬주섬 챙겼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을까. 괜스레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살이 돌아갈 이 상황이 집 안으로 들어오며 더욱 민망스런 입장이 되고 말았다.

이번 집 밖의 페인트칠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작은 샘플에 담긴 색상과 집 밖 전체에 칠해놓은 색상이 다른 것이 아

니라, 작은 것에 담긴 것을 바라볼 때와 큰 것에 담긴 것을 바라볼 때에 내 눈에 비친 색상이 다르게 보인 것뿐이다. 집 전체의 페인트 칠 후 색상을 놓고 고민했던 시간이 고마웠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으로 전체를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더욱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한 가지 속에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다.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아야 그것이 분명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히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때로는 이처럼 작거나 큰 일들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않던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나 일과 일의 관계 속에서도 비밀비재하게 빈번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서로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이해가 될 일도 코를 맞대고 얼굴을 마주하면 작은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조용히 지나갈 일도 수선스런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불편함을 줄 때가 더 많다. 이처럼 큰 그림으로 서로 조금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관계이면 모두에게 덕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입신入神과 수졸守拙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겉절이는 맛이 상큼하다. 맵고 아삭하다. 묵은지는 묵었는데, 또다른 맛이다. 맛은 깊고 두터우며 깊다. 김치찌개는 겉절이보다 묵은지로 끓여야 제맛이다. 삼합삼승일진대, 두부와 묵은 김치와 족발이라면 거의 환상이다. = 이 시詩가 서산대사의 것인 줄 알았다. 한시 漢詩인데, 이양연의 시詩란다. 번역이 오히려 뜻이 더 깊다. 먼저 길을 내고 간 선배들의 발자국을 후배들이 쫓아간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걸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양연, 야설野雪)

오늘도 바둑 이야기이다. 바둑은 일본에서는

예술이고, 한국과 중국에서는 체육으로 규정하는 모양이다. 하긴, 바둑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당당한 체육종목이기도 하다. 나에게도 그저 오락이고 게임이지 싫은데 말이다. 바둑기사 조치훈趙治勳이 벌써 환갑을 바라본단다. 이즈음 그가 한국을 방문했고, 그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다. 그가 말했다.

“만약 바둑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오히려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면 사는 게 재미없었을 것 같다. 불행하고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바둑 때문에 내 인생은 재미있다. 그래서 나는 바둑을 둔다.”

풍문으로 들었다. 조치훈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오래 전 그에게도 당연히 군대에 가야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그게 70년대 중반 일텐데, 그에게 병역면제혜택을 주어야 하는 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법에는 ‘예술이나 체

육에 공헌한 자’ 만이 혜택을 받았던 모양이다. 문제는 그 당시에는 바둑이 예술인지 체육인지 정의할 수 없었다. 논란 끝에 그가 군대를 면제 받았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프로바둑에서 초단은 수졸守拙이라는 별칭이 있다. 보잘 것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이란다. 한편 최고의 경지인 구단은 입신入神이란다. 유튜브에서 봤다. 바둑황제 조훈현曹薰鉉이 열 대여섯살 수졸守拙 초단 기사와 한판 붙었다. 조훈현이 또 누구인가. 황제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았던 최고의 기사였다. 그는 최고의 경지인 구구단이고, 입신入神에 올라 있는 게다. 바둑 상대와 나이로만 따진다면 사십오륙년 차이일게다. 초짜 프로와 신의 경지에 이른 고수가 맞대결하는 거다. 바둑을 보면서 은근히 조훈현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같은 세대라고 내가 스스로 부추겼던 거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조훈현이 졌다. 황제는 이제 용상에서 내려왔나 보다. 조훈현을 응원하고 있는 내가 우스웠다. 치고 올라오는 젊은 기사들에게 그가 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족이다. 조훈현은 공군에서 병역의무를 마쳤다고 들었다.

조훈현과 조치훈을 보고 나이드는 바둑팬들이 반갑다. 조치훈에게 조훈현이 라이벌이냐고 물었다. 조치훈의 대답이 진중하다. ‘라이벌은 무슨. 존경하는 선배다.’ 조치훈의 대답이 그가 젊을 적과 사뭇 다르다. 그의 마음도 정녕 입신의 경지에 올라선 모양이다. 프로바둑 후배는 선배를 배우고, 선배가 걸은 길을 따라간다. 세상이치가 어찌 바둑에서 뿐이랴. 묵은지는 역시 맵지 않아 맛이 깊다. 겉절이도 묵으면 묵은지가 되던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 2:14)

휴람계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 40년 이상 시력안정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년 30년 이상
안정안정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안정안정 수술
가능합니다.



- 1 안경안정 수술 (초음파) (1시간 정도)
개방형안정, 봉합, 레이저, 시력안정 수술, 안안정안정, 안안정안정 수술
-25만원 → 20만원
- 2 4000파스파라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안정
-200만원 → 170만원
- 3 백내장 수술 (안안정안정 안안정안정
안안정안정 → 안안정안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넓은 아름답다”

5% OFF

질미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수술시간 15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수술시간 20분 /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라피드이브닝/안안정안정/안안정안정)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경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 80만원



남성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정성형술,
정관수술, 정관박관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면 풍곽술, 안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할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안면거상술 (얼굴) -700만원 500만원	안면거상술 (목 포함) -800만원 600만원	비취 리프트 -300만원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150만원	하안검 -200만원 15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200만원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5. 조상의 땅을 사수하라 (2)

폰티악 전쟁 (계속)

프랑스 지배 시절 비교적 평화롭게 살아 왔던 인디언들은 영국군의 침입으로 그들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았다고 생각하여 영국군을 자신의 땅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하여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유럽인들이 미대륙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달랐다. 사학자 파크만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스페인은 인디언을 분쇄하였고 (crush) 영국은 경멸하고 무시하였고 (scorn and neglect) 프랑스는 인디언을 포옹하고 품었다 (embrace and cherish)고 한다.

1763년부터 1766년까지 계속되었던 폰티악 전쟁에 참여한 부족 대부분은 '1763년도의 파리 조약' 까지 프랑스가 소유권을 주장했던 '윗 나라(pays d' en haut)' 에 살던 인디언들이었다. '윗 나라' 에 속하지 않는 민족 중에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로쿼이 연맹이 영국군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폰티악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로쿼이 연맹 소속 부족인 세네카족은 동맹에 불만을 품고 폰티악전쟁에 참가했다.

새로운 점령군으로 등장한 영국군의 태도와 정책들에 대하여 인디언들은 위기와 모욕을 느끼게 된 것이 근본적인 전쟁의 원인이었지만 1760년대 초 확산된 민족적 신앙운동 한 몫을 한 것으로 훗날 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운동은 영국에 대한 불만과 함께 식

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은 '델라웨어의 예언자(Delaware Prophet)' 로 알려진 네오린(Neolin)이었다. 네오린은 인디언들에게 백인들의 상품이나 술 그리고 무기를 멀리하도록 권했다. 네오린은 전통적인 인디언 신앙에 기독교적 요소를 결합시켜, 백인의 악습에 물들게 되면 영국이 인디언의 존재 자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인디언들에게 설교하였다.

영국군 최고 책임자였던 애머스트(Jeffrey Amherst) 장군은 인디언들에게 잔인하기로 유명하였다. 애머스트는 포로가 된 인디언들을 "죽각 사살하라" 고 지시를 내렸으며 현대전에서나 있을법한 생물 무기까지 동원하였다. 그는 인디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부하들에게 여러 장의 담요에 천연두 균을 오염시켜 인디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민병대 지휘관이었던 트렌트(William Trent)는 그 담요를 전달한 목적이 인디언들에게 천연두를 감염시키기 위해서임을 밝혀주는 기록을 남겼다.

폰티악전쟁의 실질적인 전투는 1764년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일리노이에서는 인디언들이 끈질기게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쇼니(Shawnee) 족의 캐스케(Charlot Kaské) 추장이 가장 집요한 반 영국파 전사로 두각을 나타냈다. 캐스케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프랑스의 도움을 받고자 뉴올리언스까지 여행하기도 했다.

1765년 영국은 일리노이 점령이 외교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영국 측은 폰티악에 초점을 맞췄다. 폰티악은 오하이오 영토에서 싸우던 인디언이 이미 영국과 정전협정을 맺은 것을 듣고, 전투 수위를 조절했다. 폰티악은 1766년 7월 25일에 온타리오 요새에서 영국 측과 정식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폰티악 전쟁은 영국계 정착민들의 식민지 확대에 대해 많은 인디언 부족이 공동 협력하여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캐스케는 영국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다른 프랑스인과 인디언 도망자와 함께 미시시피 강을 건너 영국의 영토를 떠났다.

폰티악 전쟁의 사상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전투에서 약 400명의 영국군 병사가 전사했고, 50명 정도는 체포된 후 고문으로 죽었다. 이 밖에 2,000명의 정착민이 살해되거나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디언의 손실에 관하여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200여명이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폰티악 전쟁은 흔히 인디언 측의 패배로 평가되어 왔지만, 현대의 사학자들은 무승부로 보고 있다. 인디언은 영국군을 몰아내는 데에 실패했지만, 영국도 인디언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협상과 중재로 전쟁이 끝난 것이다. 인디언은 영국 정부에 애

머스트의 인디언 정책을 포기시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승리를 쟁취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주민과 인디언을 분리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763년 10월 7일 영국령 북아메리카를 재구성하기 위해 국왕의 칙령으로 '1763년 선언(Proclamation of 1763)' 이 공포되었다. 이 선언은 폰티악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발표되어 있었지만, 폰티악 전쟁이 확대되자 서둘러 발표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선언을 통하여 동부지역의 백인 식민지와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에 있는 인디언 땅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 이 결과 애팔래치아 산맥에서부터 미시시피 강에 이르는 거대한 인디언의 영토가 완성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주민이 인디언의 땅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시키면, '폰티악 전쟁' 과 같은 분쟁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디언 입장에서는 '1763년 선언' 을 '인디언의 권리장전' 이라고 부를 만큼 크게 환영하였지만 영국 정착민과 토지 투기꾼에게 이 선언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얻어낸 전리품인 애팔래치아 산맥 너머 서부의 땅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 이로 인한 불만은 식민지들의 영국에 대한 충성심을 약해지게 만들어, 훗날 미국 독립 전쟁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93 태권도와 김운용(3)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발전을 활성화하였다. 국고의 지원과 함께 넓은 그의 인맥으로 태권도협회의 성장을 위한 기초를 잘 마련하였다.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태권도인들은 1971년 김운용에게 접촉하여 회장직을 제의하였다. 청와대 경호실을 거쳐 학술원 원장으로 있던 그는 '상부' 의 허락을 받고 태권도계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134)

김운용은 태권도계에서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박정희 전대통령에 비유된다. 박정희에 대한 역사의 평가가 이중적이듯 김운용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인 시각이 오간다. 박정희가 '내가 아니면 한국을 다스릴 수 없다.' 는 뒤틀린 확신으로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아 국민들을 '보릿고개' 에서 구해냈듯 김운용 또한 '내가 아니면 태권도를 세계화로 발전시킬 수 없다.' 는 나르시시틱한 감상으로 그의 자만심을 키우고 외적인 성장만큼이나 내적인 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특히 초창기 국기원 설립과 세계태권도연맹(WTF) 창립, 그리고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 그의 공적은 그만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데 인색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박정희가 18년 동안 장기 독재를 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했듯이 김운용도 30여년의 긴 세월 동안 많은 외형적인 업적을 쌓으면서 '태권도 황제' 로 군림했지만 태권도 내부

에 쌓인 '갈등의 골' (운영의 민주화, 국가대표선발의 문제점, 불투명한 재정, 인사불평 등등)은 점점 깊어만 갔다. 그러다 결국 그는 2005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마지막 보루(堡壘)로 잡고 있던 IOC위원직마저 사임하였다.(김재규의 의도가 어쨌든 10.26 사건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김운용의 퇴진 후 과연 태권도계의 민주화는 이루어 졌는가?)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된지 10여년이 넘게 활동하였지만 1970년 초까지 기간도장(무덕관, 청도관, 지도관, 송무관, 창무관 등 초창기 5개관) 뿐만 아니라 후일 파생된 신생관 등 여러 유파가 난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종우(지도관)는 엄운규(청도관)와 함께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했던 김운용의 정치력을 활용해 태권도계를 정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그를 영입하였다. 그리고 김운용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대한태권도협회의 중앙도장을 역삼동에 건립하고, 그곳에서 세계태권도인들의 공인단증을 발급하는 '국기원' 을 창설하였다. 즉 당시까지 모든 태권도인의 꿈이었던 '중앙도장' 이 서울 번두리 허허벌판 한가운데 작은 언덕위에 세워졌다. 부지는 당시 서울시장 양택식이 역삼공원의 일부를 기증하였고, 자제는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부탁하면 여러 업체에서 무상

으로 지원되었던 시절이었다.

133) 이종우는 최흥희를 태권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종우에 의하면 "그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답변할 가치도 없어요. 천하에 못된 자가 그자예요. 모르는 사람은 최흥희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그가 아주 쓸개 빠진 자입니다. 최흥희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신동아 2002년4월호, 육성철 기자의 질문에)

최흥희는 일본 유학시절 가라테를 수련하였으며, 군대시절 자신만의 태권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초창기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최흥희와 이종우는 많은 접촉과 교분이 있었다. 특히 1960대를 지내면서 대한태수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 국제태권도연맹(ITF) 등의 단체를 통하여 서로 간의 의견차가 나중에는 반목으로 충돌하면서, 최흥희의 망명과 전향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지구촌의 태권도를 천하통일하면서 그들은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134) 김운용은 태권도의 고수는 아니지만 경동고등학교 재학시절 태권도(공수도)를 배웠다.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창무관을 창설하고 경동고에서 체육교사를 한 윤병인 관장으로부터 배웠다. 나중에 지도관 관장이종우로부터 6단을 받았고, 태권도인들은 그를 '명예10단' 으로 별명을 붙여주었다. 단증의 발급여부는 의문이다. 당시 김운용이 국기원 원장으로 재임했었는데 자신에게 발급하진 않았으리라 본다.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안(安)

“인자는 안식일(安息日)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For the Son of Man is Lord of Sabbath”

“사람이 양(羊)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善)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How much more valuable is a man than a sheep!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마태복음 12:8, 12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과 평화적 협력을 위한 설득 노력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책의 큰 두 기둥"이라며 "대북 투 트랙 (two-track) 전략을 계속 이어 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묵함지뢰 폭발에 의한 두 부상 군인에 대한 병문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해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보내 위문했으며 직접 대통령이 가실 지 추가 일정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한편 8월 13일 오후 국회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행위 규탄결의안'을 재석의원 221명중 찬성 219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남쪽 국군장병들에게 심각한 부상(다리와 발목을 잃은 김정원, 하재연 하사)을 입힌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

국회는 "군사도발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이 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 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한다"고

국회는 또한 "북한군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군사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는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직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5

일 오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를 들은 뒤에나 8일 북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보고를 듣고서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국방부가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10일에도 '북의 표준시 변경'만 지적했다.

북이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염려해야 한다. 평양 표준시를 제 멋대로 바꾸고 김정은 북한제일위원장이 가지각색의 크고 작은 이유로 간부들을 연달아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를 일삼는 판에 무슨 대화가 통하겠는가?

최영건 내각부총리도 김정은의 산란녹화 정책에 반발한 것이 총살당한 이유.

김정은의 기분에 따라 집권 이후 처형된 간부만 70명이 넘는다.

탈북해서 북한전문음식문화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이애란씨에 의하면 "김정은이 암살되면 남한에서 1,000만 달러를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데... 이를 상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대화를 해?

이미 북한은 김일성이 "예수님을 버리고 소련공산당을 잡았을 때"부터 말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안다.

"응징과 화해"의 대북 투 트랙스: Two Tracks를 내세운 이유이다.

평화통일 목표를 꼭 실행하려는 의도에서 일까?

DMZ지뢰폭발 사건이 북한소행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공식 언급된 것은 지난 11일 영국 외교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다.

"우리정부는 강력한 대북의 지력을 바탕으로 압박도 지속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

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안보(安保)문제는 사람들의 눈에 안보이게도 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하나님과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

하긴 안보(安保)의 안(安)이 안 보이는 "하늘 나라"와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초인간적 관여가 포함되어서 겠지만.

안안: 危之對위지대=편안할 안.

이안의 구성을 보면 1. 宀: 穴居월거=(움집면) 다시 말해서 '하늘 위 천국(天國)에 있는 집.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 '영혼과 육체'가 팔(八)로 나뉘어 들어가는 '영생옥(永生屋)'을 뜻한다. 이 '영생의 집'에 女(여)는 여호와 하나님 (-)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肋骨)로 여자(女): 女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 끌어 오신다.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 창세기 2:16,17.

이 죽음을 해결하고 다시 영생(永生: The eternal life)을 되찾으시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복(福)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구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을 이라; "And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made it holy, because on it He rested

from all the work of creating that He had done"- 창세기 2:3

예수 그리스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한님의 아들로 이땅에 임마누엘(Immanuel)하시기 전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창조 역사에 동참하셨기에 "인자(人子=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고, 천지창조에 직접 참여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쉬시는 안식일의 주인(主人)이심을 선포(宣布)하신 것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은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는 '영생의 주체세력'이심을 동시에 공포하신 것.

이 사건이 바로 나사로(Lazarus)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사건으로 증거하신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중략)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 39-44

박근혜 대통령이 "70주년 남북통일 안식년"을 기대한 신앙적 근거가 분명히 오곤 있을 텐데... 아마도 북한이 안을 믿는 신앙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되찾을 때를 기다려야 될까?

**보스톤의 한글교육,
보스톤한국학교가 책임집니다!**

- 교재가 확실하다!
- 교사진이 확실하다!
- 한국문화가 확실하다!

첫째, 뉴잉글랜드 유일의 단계별 학습교재 **아놀리(Anoli) 교재** 사용!

둘째, 교사 경력 3년 이상의 **한국, 미국 교사자격증 보유교사** 유치!

셋째, **붓글씨, 발음, 부채춤, K-POP, 전통놀이, 한국요리 체험학습!**

결혼은 보스톤 한국학교입니다!

BKS 등록금 안내

Tuition: Half Year (16 Saturdays)

Regular Classes:

- \$300 (one child)
- \$560 (two children)
- \$750 (three children)

Afternoon Class: \$180 (lunch included)

개학날: Sep 12 2015

준비물: 필기도구, 3ring 바인더, 문방, 스낵

27년 전통의 보스톤 한국학교에서 2015-2016 학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 강상철 교장 Email: uno@sangkang.com Tel: 978-509-8708 Web: www.bostonkoreanschool.org

전지현 · 이정재 · 하정우 그리고 <도둑들> 최동훈 감독
모두를 흥분시킬 최강의 화제작이 온다!



★★★★★
압도적 예매율 1위!
박스오피스 1위!

최고의 이야기꾼 <도둑들> 최동훈 감독의 '핫'한 차기작!
초호화 캐스팅! 캐릭터 자체가 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열연!
제작비 180억! 블록버스터급 스케일과 화려한 볼거리!

ASSASSINATION

8월 7일 대개봉

REGAL Cinemas Fenway 13 & RPX

201 Brookline Ave, Boston, MA 02215

Tel. (617) 424-6111

AMC Loews Boston Commons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Tel. (617) 423-5801

상영관 정보 및 티켓 예매 | WWW.ASSASSINATION-THEMOVIE.COM HITKMOVIE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95)

채권(Bond) 투자의 위험성

그리스 국가 부도 사태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발표되고 있기에 투자자 마음도 함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자치령 섬인 푸에토리코(Puerto Rico)가 파산할 수 있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지만, 투자자에게 관심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특히 은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푸에토리코의 부채가 \$72 billion인데 그 빚을 갚기가 매우 어렵다고 자치령은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작은 섬의 부채와 미국에 사는 은퇴자와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퇴한 투자자는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채권에 많은 부분을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이며 그다음은 은퇴하며 필요한 생활비 마련 때문입니다.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 정부에서 발행한 유니채권(municipal bond)에 투자하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미시간 거주자가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

하면 주 정부 세금을 면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푸에토리코는 주 정부가 아니라 자유 연합주(Commonwealth)이기에 푸에토리코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면 미국 어느 주에 살고 있어도 주 정부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 은퇴자들이 푸에토리코 부채 \$72 billion 중 무려 80%인 \$56 billion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뮤추얼펀드인 Oppenheimer Maryland Municipal Bond Fund에는 37% 그리고 Franklin Double Tax Free Income Fund에는 무려 47%가 푸에토리코 채권에 투자되어 있다고 펀드 평가회사인 모닝회사가 발표했습니다. 재정설계사가 이러한 유니채권 뮤추얼 펀드에 투자했다면 투자자 자신도 모르게 푸에토리코 부채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투자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채권 투자 역시 주식투자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퇴준비나 이미 은퇴한 투자자에게 채권투자는 필수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채권투자는

주식투자만큼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투자의 위험성(Investment Risks)을 정리했습니다.

Inflation Risk: 채권은 만기일이 지나면 원금이 보장되므로 대체로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정해진 이자율이 물가지수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생활비로 살아야 하는 은퇴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몇(십)년 후 돌려받는 원금도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훨씬 작아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Default Risk: 채권은 만기일 후 원금을 상환한다는 약속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는 회사가 파산하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주 정부나 도시에서 발행한 채권 역시 파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디스(Moody's)와 같은 회사에서는 채권의 신용등급을 정합니다. 신용등급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평가자료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aa로 책정된 채권이 불량(Junk)채권보다는 파산될 위험성이 적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이일드본드(High Yield Bonds)라고 듣기 좋게 이름을 변형했지만, 전에는 강퍽 채권(Junk Bonds)이라 불렀습니다.

Downgrade Risk: 채권을 산 후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만기일이 되기 전 팔려고 하면 당연히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아야 합니다.

Liquidity Risk: 채권시장(Secondary Market)은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 뜻은 채권을 팔려고 할 때 구매자가 없으면 파는 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Reinvestment Risk: 회사에서 발행된 채권은 만기일이 되기 전에 회사가 원금을 돌려주며 채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돌려받은 원금으로 전에 있던 채권에 투자할 수 없고 이자가 적은 곳에만 투자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법] 알아두면 유용한 지적재산법 - 상표권 침해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 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 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 로펌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관련 법 중 하나인 상표법(Trademark Law)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Trademark)란 상품의 근원지(Source of the Goods)를 나타내고 그 상품의 제조사를 식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특정한 이름, 단어, 디자인, 혹은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인에게 가장 친숙한 브랜드 중 하나인 맥도날드의 빨간색 또는 하얀색 바탕에 쓰여진 McDonald's라는 이름과 노란색의 알파벳 'M'으로 디자인 된 로고는 이름, 단어, 디자인 등이 조합된 종류의 상표입니다.

미국 상표법은 타사나 개인이 비슷한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그 '상품의 근원지(Origin of Goods)'에 대한 혼동을 주는 경우에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 또는 개인의 독점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만일 경쟁사가 부당하게 A란 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이름, 단어, 디자인을 쓰며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 A는

그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아, 이를 중단시키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케이스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 '혼동의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을 증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개념은 쟁점이 되는 상품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상품의 제조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패션/코스메틱 브랜드인 샤넬이란 상표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화장품 제조사가 샤넬의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이 화장품이 샤넬의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변형된 마크를 전혀 다른 상품군인 음료수에 사용했다면, 소비자들이 그 음료를 샤넬이 만든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혼동의 가능성' 이 없다면,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동의 가능성' 이 있는지를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상표법 침해 케이스에서 이 '혼동의 가능성' 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확한 기준은 각 연방법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연방법원들은 지난 1961년 제2연방 항소법원의 Polaroid Corp. v. Polaroid Elcs. Corp. 판례로부터 비롯된 '폴라로이드 요소(Polaroid Factors)' 로 불리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원고가 상표법의 침해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이 '폴라로이드 요소' 에는 1. 원고와 피고의 상표가 얼마나 유사한지, 2. 그 중 먼저 사용되거나 등록된 상표의 인지도가 얼마나 강한지, 3. 그 상표들이 얼마나 근접하고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지, 4. 먼저 사용하거나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상대의 제품/서비스 영역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5. 피고가 의도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상표를 모방했는지, 6. 실제 소비자들의 혼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7. 소비자들의 분별 능력(sophistication)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8. 피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여덟 가지 요소들이 모

두 충족되어야만 상표권 침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법원들은 이와 유사한 요소들을 토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하기 때문에 이 중 몇 가지만이라도 해당 요소가 있다면 타사의 상표권 침해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구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엔티바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냈습니다

Welcome,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무제한 시청 월 \$ 39.99

(2년 약정시)

시니어 가입자의 경우: 월\$29.99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주리 주주의 탄생 - 분열과 타협, 그리고 분열

1821년 8월 10일, 미주리 (Missouri)가 미국의 24번째 주로서 연방에 가입했다. 미주리는 1803년 미국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의 일부였다. 건국 초기부터 미국은 1785년의 공유지 조례 (Land Ordinance Act, 1785)와 1787년 북서부 조례 (Northwest Ordinance, 1787) 등에 근거하여 준주 (準州, Unorganized territory 즉 미국의 영토지만 주 State 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인구가 60,000명 이상이 되면 주의 자격으로 연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북서지역의 준주들도 하나씩 주의 자격으로 연방에 편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영토가 주 State로 승격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주리주의 탄생은 19세기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영국과 치른 '제 2의 독립전쟁'인 1812년 전쟁을 전후하여, 미국에는 바야흐로 다양한 종류의 미국식 민족주의 (American Nationalism)이 부상했다.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어느 주의 주민으로서보다는 미국인으로 정체화하기 시작했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유럽과는 다른 미국의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문학과, 철학, 예술 속에도 자리잡아갔다. 영국과의 전쟁에 돌입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주의당 (Federalist Party)와 민주공화당 (Democratic Republican Party) 정치인들이 전혀 다른 의견을 내세웠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미전쟁에 반대했던 연방주의당의 정치력은 급격히 몰락했다. 급기야 연방주의당은 1820년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새 대통령 제임스

먼로 (민주공화당)가 과거 연방주의당의 본산지였던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보스턴 시민들은 그를 열렬히 반겼다. 신문들은 "Era of Good Feelings" (화해의 시대)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미주리주의 탄생은 바로 그 미국식 민족주의, 혹은 화해의 시대의 정점에 자리해있으면서도, "화해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분열과 화합 혹은 통합이 함께한 사건이었다. 역사적이게도, 화해의 시대 미국인들은 동부와 서부 남부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혹은 지역주의 (Sectionalism)을 확인했던 탓이다.

미주리의 연방 가입을 목전에 둔 1819년 2월, 민주공화당의 의원으로 노예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제임스 탈미지 (James Tallmadge)는 한 세대 안에 노예제를 종식시킬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노예제 도입을 금지하며,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 준주에 거주하던 노예들도 준주가 주로 승격되어 연방에 편입됨과 동시에 혹은 25세 이상 성인이 되면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탈미지 수정 Tallmadge Amendment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남부의 노예주 대표들은 탈미지 수정이 노예제를 종식시키려는 북부의 음모라고 반발하고, 미주리를 연방에 가입시키되 미주리에서 노예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20년 무렵 미국은 노예제가 폐지된 (혹은 처음부터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11개의 북부 자유주 (Free State)와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11개의 노예주가 있기 때문에, 또한 미주리가 자유주와 노예주의 경계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미주리의 연방 가입문제

는 노예제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노예주와 자유주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게 되었다.

해법은 "대타협의 아버지 Great Compromiser"인 헨리 클레이로부터 나왔다. 당시 매사추세츠의 일부였던 메인을 독립된 주로서, 자유주의 자격으로 연방에 가입시키고 미주리는 노예주로서 연방에 가입시키는 것, 그리하여 현재의 11:11 균형을 12:12로 유지시키는 안이었다.

1820년 의회에서 통과된 미주리 대타협 (Missouri Compromise)에는 노예주와 자유주간의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 외에 더 중요한 조항이 들어있었다. 즉, 앞으로 미주리의 남쪽 경계인 북위 36° 30' 북쪽의 준주/영토에서는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미주리 대타협은 북부인들에게도 남부인들에게도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해법이었다. 북부인들 입장에서 루이지애나 매입 영토의 대부분을 노예제로부터 지켜냈다는 점, 그리고 준주에서의 노예제 확산을 방어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그러했다. 남부인들에게도 어쨌거나 노예제 확산을 방어한 북부영토는 기후상 면화 플랜테이션과는 관계없는 곳이었고, 미주리를 노예주로 연방에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절반은 성공이었다.

그렇게해서 남과 북간의 혹은 자유주와 노예주간의 대립은, 화해의 시대다운 대타협을 이끌어냈고, 그리하여 미주리 주가 탄생했다. 분열을 극복한 타협이었다. 그러나 남북전쟁 전야, 미주리는 다시 화약고가 된다. 1857년 드레드 스콧 판결 (Dred Scott Decision)에서 의회가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에 관여할 수 없

으며, 따라서 준주에서의 노예 소유 문제를, 미주리 대타협에서처럼 의회가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기되었다. 드레드 스콧 판결이 내려진 이듬해 일리노이 상원 선거에서 스티븐 더글라스는 노예제 허용 여부는 각 주가 결정할 주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연방 Union의 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링컨은 드레드 스콧 판결에서 보듯, 의회의 힘이 준주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링컨은 1858년의 상원의원선거에서 패했지만,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남부의 어떤 주도 링컨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링컨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은 남부 주들이 "주의 권리"를 내세우며 연방을 탈퇴하면서 벌어진 남북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남북전쟁 동안 미주리는 델라웨어, 매릴랜드, 캔터키와 함께 노예제가 존재하지만 연방을 탈퇴하지 않은 경계주 (Border State)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전쟁 동안 미주리 주 내부에서는 노예제 폐지론자와 찬성론자들이 서로 갈등했다. 분열의 역사였다.

• 1803년의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은 오늘날의 루이지애나뿐만 아니라 미시시피강 서쪽의 아칸사스, 미조리,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라스카, 그리고 미네소타 일부지역과 사우스다코타, 뉴멕시코의 대부분 등 미국 영토의 15개 주의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 매입이었다. 쉽게말해 북쪽으로는 캐나다 접경에서 남쪽으로는 멕시코의 접경까지, 서쪽으로는 미시시피까지, 그야말로 미국의 당시 영토를 하룻 밤 새 두 배로 늘린 사건이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재고는 줄어드는데 주택구입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Realtor.com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지난 1년간 9% 상승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주택 소유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재고가 줄어들고, 새 집을 찾는 소비자들 늘면서 구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집을 가질 현실적인 거래를 마음 속에 두면서 완벽한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낮은 가격에 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우 빠르게 퍼지고 값싸고 좋은 매물을 발견할 기회는 오래 전에 없어 집니다. 더 큰 관심사는 6개월이나 1년, 혹은 2년 후에 이자율과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 집을 찾기 시작하기 전에 구매자들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 예산을 알아야 합니다.
- 예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 주택시장이 변했다면,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 현명한 제안을 하고, 제한된 액수를 적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확인하세요.
- 융자를 받기 위해서 다운 페이먼트 증액을 고려하세요.

준비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사전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경쟁 시장에서 최선의 거래를 하기 위해,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나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사전 승인이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자들은 최고 입찰 가격이 꼭 최선의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이 최선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르고 재고 상황이 별로라고 해도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한 가지 좋은 이유는, 이자율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구매자들은 저금리를 이용하면서 30년 동안 낮은 고정 금리로 잠귀 놓아야 합니다.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금리는 내년 정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5%의 이자율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주택 가격에 따라 한 달에 수 백 달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포함하면, 뒤늦은 구매자들은 판매 가격

과 이자율 모두에서 이중의 불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POSPay

world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본손: Al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s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5%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프로비던스(로드아일랜드) 동양식당 연매상 \$330,000 브라운대학 근처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급매매, 네슈아 뉴햄프셔,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20,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일식식당, 연매상 \$700,000 Beer&Wine 19년 만에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들 연매상 \$70,000 - \$91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외 가능

오랜기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2015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기간: 11.21(토)~29(일)

1. SAT I Class

12월,1월시험대비 집중 프로그램
-실전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수업과 문제풀이의 종일 프로그램
9:00-5:00
-각 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시간배분

2. SAT II subject class

Math IIC, Physics, Chemistry

3. AP및 경시대회준비 개인수업

학기중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1.기간: 9.05~1.16(2016)
-4주 단위 등록
-상시 등록가능
-기출문제 풀이중심의 집중코스
2. 시간표
9:00~12:00 실전문제풀이
12:00~1:00 점심식사
1:00~4:00 수업

• SAT II Class:

-Math II C
-Physics
-Chemistry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